中源大學報

The Jungwon University Times

제33호 2023년 12월 14일(목)/계간

발행인 · 황윤원 | 발행처 · 중원대학교 대외협력팀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지면안내

Campus News

02 중국 산동공업직업대와 '미래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교육' 국제학술대회 성공적 개최!
02 국제교류원, 외국인 유학생 제주도 문화탐방 가져
02 승마부, 각종 전국승마대회 석권!... 승마계 주목!!
02 2024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참가
03 사회봉사단, 키르기스스탄에서 해외봉사활동 실시!
03 펜싱부, 제61회 전국남녀종별 펜싱선수권대회 대학부 에페 단체전 준우승 쾌거!
03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03 씨름부, '제77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 성과 우수
04 '2023년 후기 학위수여식' 거행!
04 재학생, 미국 미주리주립대 어학연수 및 국제기구 탐방 프로그램 참여!
04 '2023학년도 중원 한마음 체육대회' 성료!!
04 백승철 학생, 항저우 아시안게임 카누 국가대표 출전!
05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특강 진행!
05 평생교육원 이전 개소식 개최!
05 '대학혁신 발전 심포지엄' 성황리에 성료!
05 김성희 교수, '제3회 인천아시아아트쇼(IAAS)' 초청 기획전 – '평화나빔' 작품 전시회 개최!
06 축구부, '2023 대학축구 U-리그2(9권역)' 우승... 2024년 1부 리그로 승격!
06 박물관, 2023년 하반기 경력인정대상기관 선정!
06 황윤원 총장, 지방자치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06 씨름부 조대승 선수, '2023삼척전국대학장사씨름대회' 경장급 금메달!!
06 축구부 신기환 선수, '2023한국대학축구연맹' 우수선수상 수상!

Major News

07 항공운항학과, 2기 서우석 학생 티웨이항공 신입부기장 최종 합격!!
07 간호학과, 'Nurse Career Navigator Program' 개최!
07 임상병리학과, (주) 멕아이씨에스와 산학협력 워크숍 개최
07 바이오산업학부 출신 장태원 박사, 클리블랜드 클리닉 포닥 선정!
08 경찰행정학과, 전 헌법재판소장 이진성 석좌교수 특강 개최!
08 간호학과, '기초해부연수회' 개최!
08 간호학과, 이덕주 교수 초청 특강 가져!
08 경찰행정학과, 초대 국가수사본부장 남구준 특임교수 특강
08 간호학과, '직무역량 강화' 의료기관 탐방!
09 간호학과, '제1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114명 선서!!
09 항공대학, Aero-K 항공 초청 취업특강 개최!
09 비행교육원, 항공운항학과 수시모집 지원자 '체험 비행' 진행
09 융합공학과 김민우 학생, '2023 한국풍력에너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우수발표상 수상!

Social News

10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및 상생을 위한 '후원의 집' 캠페인 시행!
10 괴산군 수해현장 복구 봉사활동 나서
10 황윤원 총장,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10 괴산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iN자연드림 친환경 식품' 물품 전달
10 『중원워터피아』, 지역사회 취약계층 무료 개방으로 상생
11 괴산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깨끗한 조리실 만들기 Project' 지원
11 괴산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집합교육 인형극' 실시
11 제2회 탄소중립 캠퍼스 활성화 포럼 개최!
11 황윤원 중원대 총장, 상호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 참여
11 연극영화학과 고병정 교수, '괴산의 소리를 담다, 제2회 별멍 영화제' 개막
11 사회봉사단, '사랑의 헌혈' 행사 실시

MOU

12 '대학생 도시농부지원단' 업무협약 체결!
12 충북체육회, 스포츠 산업의 발전 및 선진모델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약 체결!
12 진천군, 지역경제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12 (주)심네트와 산학협력 MOU 체결
12 안양공업고와 교육협력 협약체결!
13 충북화장품산업협회-(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충북지회 업무협약 체결!
1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사)진천중앙시장상인회 협약체결!
13 LIG넥스원, 국방산업기술분야 산학협력 MOU 체결!!
13 충북문화재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13 두리골프클럽, 상호협력 업무 협약 체결!

Life in JWU

14 전문직 간호사로서 한 걸음 내딛는 중원대 간호학과
16 조별과제-조금만 노력하면 별거 아닌 과제

Our Story

17 완전 최고의 교수님 그 잡채 시즌 2

Special

18 우리는 지금, 비행모드

후원의 집

중국 산동공업직업대와 '미래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교육' 국제학술대회 성공적 개최!

미래 교육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한국과 중국의 교육 전문가 국제학술대회 시행



▲중국 교육 전문가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우리대학교는 7월 5일부터 9일까지 중국 산둥성 쯔보시에서 중국 산동공업직업대학과 공동주최로 '미래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교육'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산동이공대학교와 쯔보직업대학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한중 대학교수들 및 교육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션별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세션 1에서는 '교육 및 평가 시스템의 이해와 발전'을 주제로 한국 대학평가 전문가는 '한국 대학기관 평가인증'에 대해 발표했고, 청화대(Tsinghua University)의 이동해(LiDonghai)교수는 '열 시스템 자체 방해 제어에 대한 리뷰와 전망'을 다루었다. 또한 길림대학교(Jilin University)의 장뢰생(Zhang Leisheng) 교수는 '고등 교육 연구자의 임무와 책임'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우리대학교의 전춘련 교수는 '핵심 역량 재설정 및 진단도구 개발'에 관한 주제로 발표했다.

세션 2에서는 '필요성 분석 및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세션 3에서는 '혁신과 발전을 위한 탐구'를 주제로 다양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번 국제학술 대회는 교육 혁신에 대한 논의와 지식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한국과 중국 교육계의 발전과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를 개최한 우리대학교와 중국 산동공업직업대학은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부〉

국제교류원

외국인 유학생 제주도 문화탐방 가져


▲제주도 한국문화탐방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대학교 국제교류원은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간 졸업 예정인 학사과정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제주도에서의 한국문화탐방 행사를 펼쳐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멋을 알리고, 한국 유학의 의미를 되새기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제주도 문화탐방 행사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웠던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한국 유학의 의미를 되새기고 제주도의 명소인 우도, 성산, 애월 탐방 등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둘러보고, 좋은 추억을 오랫동안 남기기 위해 진행한 행사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졸업하기 전에 한국의 명소인 제주도 바다를 마음껏 볼 수 있어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철수 국제교류원장은 "이번 제주도 문화탐방 행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중원대학교를 비롯한 한국의 자연과 문화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좋은 추억이 되는 시간이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교류원은 매년 외국인 유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편집부〉

승마부, 각종 전국승마대회 석권!... 승마계 주목!!


▲제2회 경상북도지사배 전국승마대회에서 승마부 학생이 시상을 받고 있다.

우리대학교 승마부가 6월에 개최된 각종 전국승마대회에서 승승장구해 승마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상주국제승마장에서 개최된 제2회 경상북도지사배 전국승마대회에서 승마부 학생들이 1~3위를 석권했다. 이번 대회에서 110 Class 종목에 정지훈(운동레저학부, 1학년) 학생이 1위, 120 Class에서는 이현규(운동레저학부, 1학년), 정지훈(운동레저학부, 1학년) 학생이 각각 1위, 3위를 차지했다.

이현규 학생은 제2회 경상북도지사배 전국승마대회 130 Class에서 3위를 차지하였으나, 바로 이어 개최된 제4회 경기도승마협회장배 전국승마대회에서 1위를 탈환하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제4회 경기도승마협회장배 전국승마대회는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장수승마장에서 개최되었으며 마장마술과 장애물 종목으로 진행되었다.

경기도승마협회장배 130 Class에서는 우리대학교 1학년 선수들이 1위(이현규)와 2위(정지훈) 메달을 가져오는 쾌거를 거두었다. 특히 경기도승마협회장배 130 Class는 챔피언십 경기로, 뛰어난 국내 승마선수들이 대거 참여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쟁쟁한 프로선수들 사이에서 이현규(운동레저학부, 1학년) 학생은 통합 2위를 차지해 우리대학교 승마부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 외에도 110 Class에서 김민재(운동레저학부, 1학년) 학생이 1위를 차지하고 140 Class에서도 이현규(운동레저학부, 1학년) 학생이 우승하는 등 많은 종목에서 금메달을 가져오며 우리대학교 승마부가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된 승마대회에서 빼어난 성적을 거둔 이현규 학생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낀다"며 "중원대에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편집부〉

2024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참가



▲2024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 참가하고 있다.

우리대학교가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서 열리는 '2024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우리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146개 4년제 대학이 참가하며, 우리대학교는 입학 관계자와 학과 교수들이 학과별 특성 소개, 장학제도, 기숙사 입사정보 안내 등 수험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입시전략을 통해 수험생 모집에 총력전을 펼쳤다.

2024학년도 입학전형에서 가장 큰 변화는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뷰티메디컬학과, 골프과학과, 생명과학과, 융합바이오학과를 신설하고, 일반전형 Ⅰ, Ⅱ에서 학생부 평가과목을 대폭 축소하여 상위 2개 교과군, 상위 2개 과목만 반영(총 4과목)한다.

또한 간호학과는 수시에서만 119명을 선발하고, 100% 전액 장학금이 지원되는 기회균형전형은 정원내 44명으로 확대되었으며, 모든 전형, 모든 모집단위(학과(부))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미적용하며 지원자격만 맞으면 교차지원과 전형 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유영재 입학처장은 "이번 박람회에서 지난 수시모집 성적을 100% 공개하고, 맞춤형 입학상담은 물론 전공탐색과 정보습득 등을 통해 수험생이 적성과 소질에 맞는 올바른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라며, "중원대는 학생이 먼저인 대학, 취업이 먼저인 대학이라는 취업우선 정책 시행으로 우리 대학을 믿고 선택한 신입생들은 최고의 교육여건에서 높은 취업률의 특성화 인재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편집부〉

사회봉사단

키르기스스탄에서 해외봉사활동 실시!

우리대학교 사회봉사단(단장 이상열)이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키르기스스탄에서 해외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2023년 하계 대학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된 우리대학교는 국제구호개발 NGO (사)월드쉐어와 함께 총 19명으로 봉사단을 구성해 키르기스스탄 츄이주 지역의 토크막 그륩홈과 아쓸바쉬 지역의 베쉬게릭 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키르기스스탄 해외봉사활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봉사단은 ▲명찰(한글이름) 만들기 ▲태극기 비누 만들기 ▲마시멜로 타워·자외선 야광팔찌 만들기 ▲축구, 풍선놀이, 종이접기, 컵타놀이 등의 교육봉사를 진행하고, 노력봉사로 무료급식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원 대표로 참여한 이종혁(항공운항학과 4학년) 학생은 "해외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현지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감하며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값진 경험을 얻게 되었다" 며, "이번 해외봉사활동에서 동고동락하며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도록 애써준 동료 봉사단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이상열 사회봉사단장은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진행한 해외봉사활동에서 우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키르기스스탄 현지 학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었으며, 우리 대학의 건학이념인 해원 상생의 가치를 널리 전파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고 말했다.

〈편집부〉

펜싱부, 제61회 전국남녀종별 펜싱선수권대회 대학부 에페 단체전 준우승 쾌거!

우리대학교 펜싱부(감독 송은일)는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제61회 전국남녀종별 펜싱선수권대회 대학부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창단 4년차 신생팀인 우리대학교 펜싱부는 반지현(경호학과 2), 이영서(경호학과 2), 노유진(경호학과 1) 선수가 팀을 이뤄 출전한 단체전에서 한국체육대와 국제대를 맞아 강인한 정신력과 투지를 앞세워 결승전에 올랐으나 호원대에 석패하여 아쉽게 준우승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황윤원 총장은 "매번 훌륭한 경기력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펜싱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중원대의 위상을 높이는데 힘써 달라" 고 말했다.

한편, 우리대학교 펜싱부는 대한펜싱협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매년 좋은 성적으로 각종 대회에서 실력을 입증하며, 전국 최고의 대학 펜싱부로 성장하고 있다.

〈편집부〉



▲제61회 전국남녀종별 펜싱선수권대회 대학부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시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중원대학교 전경 사진

우리대학교가 최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으로부터 친환경 대학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14001' 인증을 획득했다.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이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에 관한 국제 표준으로 환경개선을 위해 환경경영을 방침으로 삼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인증 획득은 해당 조직의 환경·행정업무 체계가 국제적인 수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표준화 기구 ISO에서 인정한 기준을 대학이 도입한다는 것은 조직 스스로 품질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선, 보완함으로써 대학의 가치를 높이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더욱 발전해나가고자 하는 대학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대학교는 이번 인증 획득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개선 활동과 투자를 진행해 왔다.

학내를 탄소중립 캠퍼스 실천의 장으로 조성하여 전 세계가 동참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과 국가 차원의 녹색 성장을 위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친환경생활실천운동, 환경정화 봉사활동 등 다양한 친환경 사업 추진으로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그린캠퍼스 조성지원 사업' 에 선정된 바 있다.

황윤원 총장은 "중원대학교는 이번 ISO 14001 인증 획득을 통해 환경경영시스템 부분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신뢰도를 높이며, 이에 따른 추진 동력이 확보됐다" 며, "앞으로 더욱 환경을 생각하는 대학 행정을 펼쳐 세계적인 그린캠퍼스 특성화 대학으로 나아갈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대학교는 제4기 그린캠퍼스 총장협의회 의장대학(2018년~2020년) 수행, 2018년 그린캠퍼스 조성 우수대학 선정, 2022년 그린캠퍼스 조성사업 선정 등 국내대학의 그린캠퍼스 조성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협력, 그린캠퍼스 조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마련, 그린캠퍼스 선정대학 간 우수사례 공유 등 지속적으로 그린캠퍼스 조성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편집부〉

씨름부, '제77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 성과 우수

우리대학교 씨름부(감독 강형모)가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충남 보령시 보령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77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 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

이번 대회 대학부 개인전 매화급에 출전한 권승희(스포츠지도학과 1) 선수와 국화급에 오지현(종교문화재학과 1) 선수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다수의 수상자가 나왔다. 박지수(스포츠지도학과 2) 선수가 매화급에서 2위를, 김정윤(스포츠지도학과 3) 선수가 무궁화급에서 2위를 차지했으며, 용사급에서는 김선우(종교문화재학과 4)가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강형모 감독은 "중원대 씨름부 선수들 전원이 훈련을 한치도 게을리하지 않고 대회를 준비한 노력의 결실을 맺게되어 기쁘고, 다음 대회에서는 개인전뿐만 아니라 단체전에서도 메달을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김선우 선수는 지난 7월 6일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0회 대통령기전국장사씨름대회' 에서 용사급(-95kg)에서 1위를 달성하여 금메달을 차지한 바 있으며, 박지수 선수는 매화급(-60kg)에서 3위를 달성하여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편집부〉



▲제77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에서 시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년 후기 학위수여식’ 거행!

우리대학교가 8월 17일 오전 11시 본교 상생홀에서 ‘2023년 후기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황윤원 총장과 주요 보직자, 학위 취득자와 학부모,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사 123명, 명예학사 1명, 석사 7명, 박사 7명 등 총 138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이날 행사는 △개회사 △국민의례 △내빈소개 △학위 및 상장 수여 △총장 식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본교 상생홀에서 2023년 후기 학위수여식 거행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총장상은 학업성적 우수자로 사회문화대학 송윤상(경찰행정학과), 융합과학대학 김태지(컴퓨터공학과), 항공대학 박수연(항공운항학과) 학생이 받았다.

이어 공로상에는 학사과정 사회문화대학 박수호(경찰행정학과), 송윤지(연극영화학과), 석사과정 일반대학원 강원선(체육학과), 박사과정 일반대학원 주량(교육학과)학생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황윤원 총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 대학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개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다”며 “오늘 대학문을 나서는 졸업생들은 새로운 배움의 열정과 태도를 견지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당당히 사회로 나아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편집부〉

재학생, 미국 미주리주립대 어학연수 및 국제기구 탐방 프로그램 참여!

우리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정은주(3학년), 김우진(4학년), 간호학과 이현서(4학년) 학생이 한국국제교류재단 주최 ‘KF 글로벌 챌리저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8월 22일부터 12월 9일까지 16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업열의 및 국제 활동 잠재력이 뛰어나지만, 장기간 해외 거주 및 유학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진출 역량을 함양하고 세계시민으로 도약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여 약 120여 명이 지원했고, 3:1의 경쟁률로 최종 선발된 인원은 40명으로, 우리대학교는 교내 선발 과정을 통해 5명을 추천하여 3명의 학생이 최종 선발됐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주최 ‘KF 글로벌 챌리저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KF 글로벌 챌린저 아카데미’ 합격자를 대상으로 2023년 7월과 8월은 온라인과 대면 방식으로 기본 국제 소양 교육, 국제교류 전문 교육, 어학 교육, 해외 진출 진로 탐색, 멘토링 프로그램 등 국내 연수를 진행했으며, 2023년 8월 22일부터 약 16주 동안 미국 미주리주립대학 내의 영어 교육기관에서 영어 연수 및 미국 유명 기업탐방 등을 진행했다.

선발된 항공서비스학과 정은주 학생은 “대학에 입학하고 어학연수의 기회가 간절했는데 KF 글로벌 챌린저 아카데미를 통해 그 꿈을 이루게 된 거 같아 정말 뿌듯하고 기뻤다”며, “최종합격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항공과 교수님들, 국제교류원의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서비스학과 김우진 학생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미국에서 매일 너무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왔다”며, “항공편부터 기숙사, 식비까지 모든 지원을 받으며, 매일 영어 수업을 듣고 수업이 끝나면 외국인 친구들과 영어로만 생활하기 때문에 영어가 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으로 훌륭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간호학과 이현서 학생은 “KF 글로벌 챌린저 아카데미 참가자로 미국 미주리대학교에 오게 되어 처음 배우고, 경험하는 것들이 정말 많으며, 항상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과 행동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고 무섭기도 했지만 세상의 다양성, 글로벌을 이해해가는 과정임을 배우게 되었다”며, “단순한 언어 이상의 것을 체험하고 배우며 매일이 새 학기 첫날 같은 기간이었다”고 말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The Korea Foundation, KF)은 외교부 산하 공공외교 전문기관으로 1991년 설립 이래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인식 제고 및 한국과 세계 각국 간 우호친선 증진을 위해 학술, 인사,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편집부〉

‘2023학년도 중원 한마음 체육대회’ 성료!!


▲2023학년도 중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우리대학교는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교내 운동장에서 학생들의 건전한 인성함양 및 일체감, 협동심을 도모하기 위한 ‘2023학년도 중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제12대 총학생회 ‘해봄’ 주관으로 펼친 이번 체육대회는 축구, 농구, 피구, 족구, 계주, 탁구, 판뒤지기, e-스포츠, 씨름 등 총 9개 종목으로 9월 8일부터 18일까지 종목별 예선을 진행했다.

이어서 19일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김철수 부총장, 송인헌 괴산군수를 비롯한 내빈, 교직원 및 재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특히 이번 체육대회에는 동아리(E.N.T, 첫음처럼, 차오름)의 문화공연(버스킹, 댄스)과 푸드트럭을 포함한 각종 먹거리 행사 및 ‘맥주데이’를 함께 열어 참여한 모든 구성원들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체육 축제로 승화시켰다.

또한 재학생 대상으로 진행된 이벤트 경기(재학생과 씨름선수와의 씨름대회 및 재학생 간 씨름대회)를 진행하여 체육대회에 흥미를 이끌어냈다.

한정수 학생처장은 “학생들을 위해 힘써준 제12대 총학생회 ‘해봄’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체육대회가 학생들에게 활기찬 캠퍼스의 분위기를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백승철 학생, 항저우 아시안게임 카누 국가대표 출전!



▲백승철 학생, 항저우 아시안게임 카누 국가대표 출전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우리대학교 카누부(감독 유현승) 소속 백승철(스포츠산업학과 3학년) 학생이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중국 항저우시에서 열리는 제19회 항저우아시안게임 카누(슬라럼)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백승철 선수는 지난 4월 ‘2023년도 카누 국가대표 선발전 및 제40회 회장배 전국카누경기대회’에서 카누 국가대표 선발전 슬라럼 카누 부문에서 2위로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쾌거를 거뒀다.

9월 18일 황윤원 총장은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막바지 훈련과 컨디션 조절을 하고 있는 카누 국가대표 백승철 선수를 격려하고 응원했다.

백승철 카누 국가대표 선수는 “그동안 흘려온 땀의 결실로 태극마크를 달고 국위선양은 물론 중원대 위상과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특강 진행!

대학의 변화, 혁신·발전을 위한 지역협력 모색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우리대학교는 10월 25일 대학 상생홀에서 열린 '대학 혁신 · 발전 심포지엄' 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김영환 도지사의 특강은 대진교육재단 안성준 이사장, 중원대 황윤원 총장을 비롯한 지역민, 대학구성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의 변화, 혁신 · 발전을 위한 지역협력' 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김영환 도지사는 ▲창조적 상상력 ▲충청북도의 브랜드 ▲해외 근로 유학생 유치 ▲발상의 전환 등 지역과 함께 대학의 전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찾고자 했다.

김 지사는 "충북의 랜드마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며 "국민이 충북을 찾아 즐길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고 제언하며, "하늘에서 바라본 대청호의 모습은 용이 승천하는 모양을 하고 있다" 며 "이것을 충북의 상징인 '대청호의 용' 으로 조성해야겠다" 고 설명했다.

이어 "대청호가 충북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충북은 '대한민국의 중심' 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강을 마무리하며 "충북이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는 원동력은 생각의 전환과 과감한 실행력" 임을 강조하며 "지역과 함께 대학이 충북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개회행사에서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의 축사에 이어 대진교육재단 안성준 이사장이 대학발전을 위한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기조강연을 실시했다.

중원대는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대학 교육혁신 전략을 세우고, 지역 및 국가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체제 구축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편집부〉

평생교육원 이전 개소식 개최!



▲평생교육원 이전 개소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김은정)은 10월 5일 교내 평생교육원 앞 광장에서 지역민과 수강생들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장소 이전을 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황윤원 총장, 송인헌 괴산군수와 윤석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손휘택 괴산경찰서장, 석용수 대학원원우회장, 김형탁 양궁훈련원장, 대학 주요보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커팅식과 함께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기존 평생교육원이 대학 본관동 내에 위치하여 장소가 협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지역민과 수강생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느껴왔다.

장소를 이전하여 개소한 우리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접근성은 물론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평생교육 복지를 위한 지역민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다양한 수업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개소식에서 황윤원 총장은 "이번 이전으로 지역민과 수강생들이 언제나 편안하게 이용하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중원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역의 중심에서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학습을 이끌어가는 평생교육의 허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평생교육원 '2023년 지역상생 미래인재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관련 특강으로 11시 대학 상생홀에서 '정주율 향상을 위한 지역 활성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우리대학교 황윤원 총장의 특강이 진행됐다.

우리대학교 평생교육원은 해마다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수요조사를 통해 골프, 수영, 헬스, 축구, 요가, 댄스 등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글로벌 및 직업교양으로 영어회화, 커피바리스타, 네일아트 등 다양한 취미 및 전문가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편집부〉

'대학혁신·발전 심포지엄' 성황리에 성료!



▲본교 상생홀에서 대학혁신 · 발전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우리대학교가 10월 25일 대학 상생홀에서 '변화의 시대, 대학의 새로운 길을 열다!' 대학혁신 · 발전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마쳤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중원대 황윤원 총장, 대진교육재단 안성준 이사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를 비롯한 지역민, 대학구성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지역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한 위기에 처한 지금이 대학과 지역이 힘을 합쳐 혁신에 나서야 할 골든타임" 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대학 혁신의 전략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하며, 대학과 지역이 혁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본 행사 1부(공감: 대학 발전 추진방향)에서는 대진교육재단 안성준 이사장의 장기발전 비전 제시를 위한 '지역과 대학' 을 주제로 기조강연이 진행됐다.

안성준 이사장은 기조강연에서 "변화하는 시대에 실효성 있는 대학의 역할을 다시 고민하고, 지역대학의 당면한 위기를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2부(혁신: 대학 발전 분과토의) 행사에서는 ▲세션1: "특성화" ▲세션2: "학생중심" ▲세션3: "평생교육" ▲세션4: "지역연계" 의 각 세션별 심도 있는 혁신발전 분과토의에 이어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대학의 변화, 혁신, 발전을 위한 지역협력' 이라는 주제의 초청강연이 진행됐다.

황윤원 총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지역과 함께 시대적 위기를 공감하고, 이러한 위기 대처를 위한 지역이 중심이 되는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학 혁신과 발전으로 중원다움 미래형 인재를 키워내며 지역과 함께 커가는 대학을 만들어나가겠다" 고 말했다. 〈편집부〉

김성희 교수, '제3회 인천아시아아트쇼(IAAS)' 초청 기획전

'평화나빙' 작품 전시회 개최!

우리대학교 교양학부 김성희 교수가 제3회 인천아시아아트쇼(IAAS)의 초청작가로 선정돼 오는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송도컨벤시아에서 '평화나빙'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전시작품 '평화나빙' 은 평화롭게 나는 나비와 아름다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표현한 것으로 작은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받아 멸종되고 이동해야만 살아남는 '나비' 라는 생명체를 세상 어디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평화로운 나비로 표현하고, '나' 라는 한글과 'Being' 이란 영어의 합성어로 살아 숨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표현한 단어로 조합했다.

실제로 김 작가는 지난봄 바다 위 선상에서 본인이 만든 '나빙' 작품을 직접 메고 나비가 되어 바다 위를 평화롭게 나는 자신을 상상하며 아름다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나빙' 이라는 작품을 통해 표현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작품은 예술가와 기업의 협업으로 나비의 날개에 쓰인 신소재 탄소섬유와 가공은 그린복합재료 제품을 생산하는 ㈜휴먼컴퍼지트가 협찬했으며, 생태계를 표현한 대형 프레임은 친환경 PVC 창호 업체인 ㈜우신윈시스템의 협찬을 통해 예술가와 기업들이 협업해 관객들에게 작품을 통한 새로움을 선사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김 교수는 "이번 제3회 인천아시아아트쇼(IAAS)를 찾는 많은 관람객이 작품을 통해 블루카본과 그린카본 등 탄소중립에 관한 관심이 나비효과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김성희 교수는 과학과 예술이라는 융합학문을 영국에서 수학하고, 한국 최초로 탄소섬유를 사용해 '카본아트' 를 선보인 '카본아티스트' 이자, 우리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융합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편집부〉

축구부

‘2023 대학축구 U-리그2(9권역)’ 우승...2024년 1부 리그로 승격!

우리대학교 축구부(감독 이세인)가 ‘2023 대학축구 U-리그 2(9권역)’ 우승을 차지하며, 2024년 대학축구 U-리그 1부로 승격하게 됐다.

2023 대학 축구 U-리그(2부)는 권역별로 올해 3월 24일 첫 경기를 시작으로 10월 27일까지 총 14경기를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진행했다.

우리대학교 축구부는 10월 27일 ‘2023 대학축구 U-리그 2부 9권역’ 최종전에서 신성대를 2대 1로 꺾으며, 총 14경기 중 10승 3무 1패의 우수한 성적으로 1위에 올랐다.

이세인 감독은 “올해 대학축구 U-리그2(9권역) 우승을 차지해서 매우 기쁘고,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며, “매 경기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황윤원 총장님을 비롯해 학교 구성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내년 승격 후에도 좋은 성적을 내도록 만발의 준비를 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내년 축구학과 신입생 중에는 좋은 선수들이 많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앞으로도 좋은 성적으로 중원대를 홍보하는데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한편, 우리대학교는 2023년 축구학과 신설을 통해 축구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갖춤에 따라 양질의 축구 인재 육성과 더불어 우리대학교 축구부의 성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부〉

박물관

2023년 하반기 경력인정대상기관 선정!

우리대학교 박물관(관장 이주희)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이 실시한 박물관 · 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2023년 하반기 경력인정대상기관’ 에 11월 6일에 선정됐다.

‘경력인정대상기관’ 이란 학예사자격증을 지닌 전문직원 2명 이상의 등록박물관으로 인력, 시설, 자료관리의 실태 및 업무 실적이 우수하고, 향후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실습과 실무연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정된다.

이번 2023년 하반기 경력인정대상기관 심사에 우리대학교 박물관은 신청한 10개관 중 선정된 4개관에 포함되었으며, 충청북도소재의 사립 대학박물관 중 유일한 경력인정박물관이 되어 박물관에 재직, 실무연수 또는 실습을 받는 자가 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근무 경력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중원대학교 박물관 사진

됨에 따라 관련 학과 재학생들의 실습 경험을 통해 진로 선택 및 졸업 후 취업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우리대학교 박물관은 해마다 문화소외지역 괴산군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지역작가 초대전시’,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대학박물관진흥지원사업’, ‘꿈다락문화예술학교’, ‘찾아가는 박물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편집부〉

황윤원 총장, 지방자치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황윤원 총장이 ‘2023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을 맞아 지방자치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지방자치 발전, 지방경쟁력 강화, 지방소멸위기 극복, 우수시책 또는 정책 발굴 · 추진 등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괴산군 송인헌 군수가 국무총리를 대신해 표창장을 전달했다.

황 총장은 중원대학교 총장으로서 괴산군과 관-학 협력의 좋은 순환고리를 유지함으로써 지역사회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22년도에는 괴산군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괴산군-중원대학교 상생협력 TF팀을 구성하였고, 2023년도에는 괴산군의회, 중원대학교, 주민자치위원협의회 3자간 간담회를 통해 자치단체와 대학혁신 특성화 기본방향, 괴산군-중



▲황윤원 총장이 지방자치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원대학교 거버넌스 구축, 상생발전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해 토의하며 지역사회 자치역량 증대에 큰 기여를 했다.

황 총장은 “지방자치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며 “앞으로도 지방소멸위기 극복 및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편집부〉

씨름부

조대승 선수, ‘2023 삼척전국대학장사씨름대회’ 경장급 금메달!!



▲조대승 선수, 2023 삼척전국대학장사씨름대회에서 금메달 시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우리대학교 씨름부 조대승 선수(스포츠지도학과 3학년)가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삼척체육관에서 열린 ‘2023 삼척전국대학장사씨름대회’ 에서 개인전 경장급(75kg이하)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는 한국대학씨름연맹과 삼척시체육회가 주최하고 한국대학씨름연맹과 삼척시씨름협회가 주관하여 대학부 16개 팀 240명,여자실업부 6개 팀 60명 등 총 22팀 30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이번 대회 대학부 경장급(-75Kg)에 참가한 조대승 선수는 결승에서 박대한(인하대)선수를 2-1로 물리치고 최종 금메달을 차지했다.

조대승 선수는 “첫 우승을 우리 중원대학교에서 이루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 더 많은 메달로 보답하겠다” 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우리대학교 씨름부 강형모 감독은 “조대승 선수는 대학 입학 후 기량이 많이 향상된 선수 중 한 명” 이라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조대승 선수가 매우 자랑스럽다” 고 말했다.

한편, 우리대학교 씨름부는 결과보다는 집중력 있는 훈련 프로그램으로 실력과 인성을 갖춘 예의 바른 선수들을 키우며, 전국장사씨름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편집부〉

축구부

신기환 선수, ‘2023한국대학축구연맹’ 우수선수상 수상!



▲신기환 선수가 2023한국대학축구연맹에서 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우리대학교 축구부(감독 이세인) 신기환(경호학과 3학년) 선수가 12월 4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23 한국대학축구연맹 시상식’ 에서 우수선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선수상은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대학축구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춘, 추계대학연맹전과 U리그, 왕중왕전 결과를 토대로 한국대학축구연맹 시상선정위원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를 선정하여 주는 상으로 신기환 선수는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며,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신 선수는 우리대학교 축구부 주장으로서 수비수로 활약하며, U-리그 우승에 많은 기여는 물론 위기의 순간 실점 상황에서 발빠른 대처로 팀에 대한 희생정신을 보여줬다. 또한 신 선수를 중심으로 수비조직을 콤팩트하게 가져가며 경기장에서의 탁월한 리딩으로 실점상황을 최대한 모면하는 모습으로 리더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신 선수는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의 영광을 중원대 축구부를 원팀으로 만들어주신 감독님과 코치님을 비롯한 팀동료, 중원인, 부모님들께 돌린다” 며, “앞으로도 상에 걸맞는 선수가 되도록 내년에는 더욱 열심히 뛰어 원팀인 중원대 축구부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편집부〉

항공운항학과

2기 서우석 학생 티웨이항공 신입부기장 최종 합격!!



▲서우석(15학번) 항공운항학과 2기

우리대학교 항공운항학과 2기 서우석(15학번) 졸업생이 최근 티웨이항공사에 신입부기장으로 최종 합격했다.

우리대학교 항공운항학과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우석(15학번) 졸업생이 민간항공사에 합격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이번 티웨이항공사에 입사한 서우석 졸업생은 앞으로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일정기간의 교육훈련을 마치고 부기장으로서 다양한 항공노선에 투입 된다.

박상용 항공운항학과장은 "중원대학교 항공운항학과는 학생들이 민항사, 군조종사, 항공 종사자 등 항공산업분야의 다양한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항사와의 유대강화와 협약 체결 등을 추진해 학생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대학교 항공운항학과는 무안에 위치한 중원대학교 비행교육원 자체 교관양성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Delta Qualiflight Aviation(미국비행교육원) 교관취업 4명, 청주대 비행교육원 교관 1명, 해군 조종장학생 2명, 공군 조종장학생 8명 중 7명이 고등수료하며 수료생 중 2명이 단장상과 남부사령관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편집부〉

간호학과

'Nurse Career Navigator Program' 개최!

우리대학교 간호학과(학과장 백수미)는 7월 3일 오전 10시 교내 상생홀에서 괴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으로 진행된 예비 간호사 4학년 재학생 대상 '취업 실무 강화 프로그램(Nurse Career Navigator Program)'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취업 스킬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지 메이킹, 이력서 작성법, 면접 대처법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하였으며, 강사들의 지도 아래 바람직한 용모와 복장, 자세와 태도 유지법을 학습하고, 자기 주도적이며 상대에 맞는 이미지 메이킹 연출법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또한, 프로그램 후에는 1:1 면접 질의응답 시연, 동영상 촬영 및 모니터링 등의 다양한 취업실전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백수미 간호학과장은 "이번 취업 실무 강화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취업에 필요한 전문역량을 갖추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실전 훈련의 장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남하늘(간호학과 4) 학생은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 막막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유용한 취업 스킬을 습득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특히 면접에서도 자연스럽게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취업 실무 강화 프로그램(Nurse Career Navigator Program)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3년 양성평등 지원 공모사업비로 진행되었으며, 괴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우리대학교 간호학과는 이를 통해 간호사 인력 양성과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임상병리학과

(주)멕아이씨에스와 산학협력 워크숍 개최



▲제3회 중원대 임상병리학과-㈜멕아이씨에스 산학협력 워크숍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대학교 임상병리학과(학과장 이형선)가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교내에서 2박 3일의 일정으로 ㈜멕아이씨에스(대표 김종철)와 '제3회 중원대 임상병리학과-㈜멕아이씨에스 산학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수면 호흡치료 전문가 과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멕아이씨에스 및 자회사의 임직원과 우리대학교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을 포함한 60여 명이 참여했다.

본 워크숍에서 ㈜멕아이씨에스는 이재원 부대표, 전지영 부장과 최지호 순천향대 부천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 김현준 교수의 강의와 실무 연계 실습 과정이 진행됐다.

또한 우리대학교 임상병리학과에서는 수면 호흡치료의 전문가인 김진관 교수, 윤대위 교수의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올해부터는 기본과정과 고급과정을 분리하여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더욱 깊이 있는 워크숍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진관 교수는 "맞춤형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된 본 프로그램을 이수한 임상병리학과 학생은 취업 시 인센티브 제공을 포함한 다양한 기회를 받을 예정이며, 더욱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취업 연계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멕아이씨에스는 국내 유일의 중환자용 인공호흡기, 호흡치료기를 제조하는 전문기업으로 2021년 우리대학교와의 협약체결 이후 3년 동안 총 6,000만원의 우리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지정기부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전문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편집부〉

바이오산업학부 출신 장태원 박사, 클리블랜드 클리닉 포닥 선정!



▲장태원 박사

우리대학교 바이오산업학부 출신의 장태원 박사가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플로리다 연구 및 혁신 센터(Cleveland Clinic Florida Research & Innovation Center)에서 박사 후 연구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장태원 박사는 2009년 우리대학교에 1기 입학생으로 들어와, 2015년에 생약자원개발학과(현 바이오산업학부 생명과학과)를 졸업하였으며, 2017년에는 본교 대학원에서 생명과학과(생약자원개발학 전공) 석사학위를 받았다.

당시 본교에서는 박사 과정이 개설되지 않아 불가피 다른 대학의 박사 과정에 입학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우리대학교 박재호 교수의 지도아래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해왔다.

그중에서도 천연물 소재를 활용한 항산화, 항염증 및 항암 연구 분야에서 특히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로써 국내외 학술지에 약 30편(그 중 SCI 10편, SCOPUS 8편, KCI 11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는 우리대학교에서 초빙교수로 재직하며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장태원 박사는 "지금까지 식품제약학과 초빙교수로 재직하면서 그동안의 수업과 연구 경험이 앞으로 연구자로서의 발전에 매우 유익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원대학교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귀감이 되고자 더욱 증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플로리다 연구 및 혁신 센터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의료 및 연구기관으로 고급 의료 서비스와 혁신적인 의학 연구를 결합하여 환자 치료 및 의학 연구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편집부〉

경찰행정학과

전 헌법재판소장 이진성 석좌교수 특강 개최!

헌법 원칙과 기본권 보장 : 헌법(기본권 관련)사안에 대한 주요 쟁점

우리대학교는 11월 1일 본교 상생홀에서 전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이진성 중원대 석좌교수의 특강을 진행했다.

경찰행정학과(학과장 문희태)에서 마련한 이번 특강에는 교수진 및 본교 재학생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해 '헌법 원칙과 기본권 보장: 헌법(기본권 관련) 사안에 대한 주요 쟁점' 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날 이 석좌교수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평등'을 비롯한 '법률유보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과 같은 헌법 원칙을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이날 특강에서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차별,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의 이동의 자유, 외국인 강제 퇴거자의 무기한 보호시설 보호 등 최근 사회적으로도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보충 의견 등은 학생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경찰행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민영 학생은 "사례를 통하여 헌법 원칙을 쉽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사회문제를 이해하는 시야를 넓힐 수 있어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전 헌법재판소장 이진성 석좌교수 특강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석좌교수는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을 희망하고 있는 우리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에게 전문지식은 물론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고민과 아울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미래의 주역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간호학과

'기초해부연수회' 개최!



▲기초해부연수회 프로그램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대학교 간호학과(학과장 백수미)가 7월 21일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에서 해부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기초의학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해부연수회를 진행했다.

이번 기초해부연수회 프로그램은 취창업지원센터의 지원으로 간호학과 1, 2학년 학생 중 지원자 20명을 대상으로 기증자의 시신을 통한 인체 구조와 기능을 확인하여 학생들의 전공과목 이해도 향상과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소윤(간호학과 2학년) 학생은 "기증자의 시신을 통해 실제적인 학습을 진행하면서 전공지식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오늘의 소중한 경험이 임상에서 환자를 간호할 때 큰 자신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간호학과 조진영 교수는 "이번 연수회를 통해 학생들의 임상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소감을 밝혔다.

우리대학교 간호학과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편집부〉

경찰행정학과

초대 국가수사본부장 남구준 특임교수 특강


▲초대 국가수사본부장 남구준 특임교수 특강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대학교가 10월 17일 본교 상생홀에서 남구준(초대 국가수사본부장) 특임교수의 특강을 진행했다.

취창업지원센터와 경찰행정학과에서 마련한 이번 특강은 남구준 특임교수의 '국가수사본부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재학생 및 교직원 50여 명이 참석해 특강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우리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남구준 특임교수는 우리나라 수사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으로 미래의 경찰 수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정책, 연구분야의 대학 내 주요 이슈에 대한 자문을 통해 우리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내실화와 대학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남 교수는 "34년간의 경찰 공직생활을 통해 경험했던 많은 노하우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그동안의 경험을 살린 생생한 수사 현장 지식을 전하며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남구준 특임교수는 경찰대 5기 출신으로 경남경찰청 수사과장과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형사과장, 사이버안전수사국장, 경남경찰청장 등을 거쳐 초대 국가수사본부본부장을 역임하며 국수본 조직시스템 안착과 안정화에 기여하고 맡은 임무를 완수하며 34년간의 경찰 생활의 소임을 다했다. 〈편집부〉

간호학과

이덕주 교수 초청 특강 가져!



▲이덕주 교수 초청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대학교 간호학과(학과장 백수미)는 9월 20일 본교 대강당에서 재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덕주(KAIST) 교수를 초청하여 '행복한 삶: 오늘부터 살기'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덕주 교수는 미국항공우주국(NASA) 에임스연구센터 연구원으로 시작해 항공기 제트엔진, 헬리콥터 공력음향학 연구분야의 세계적 석학이며, KAIST 항공우주공학과 명예교수이다.

또한 '카이스트 명상수업'의 저자로 카이스트 항공우주학과 재직시 명상 수업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온라인 교육 플랫폼 코세라에서는 해당 수업을 전 세계 8만 명 이상이 수강했다.

최근에는 스트레스를 받는 현대인에게 마음을 비우고 내면을 보는 눈을 가지는 명상의 효과를 대중에게 소개했다.

이날 특강 주제인 '행복한 삶: 오늘부터 살기'는 학생들과 교수진에게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살아나가는 방법과 행복을 찾는 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였으며, 이 강연을 통해 학생들은 삶의 가치와 행복을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우리대학교 간호학과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인간적인 가치에 대해 깊게 사색할 수 있는 인성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편집부〉

간호학과

'직무역량 강화' 의료기관 탐방!



▲베스티안 병원(오송) 탐방 활동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대학교 간호학과(학과장 백수미)는 재학생들의 직무 및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0월 26일 화상 전문병원인 '베스티안 병원(오송) 탐방 활동'을 실시했다.

본교 취창업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탐방에는 우리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20여 명이 참여하여 병원 투어 및 간호 현장을 방문하여 화상 전문 병원에서의 간호직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탐방에 참여한 간호학과 이지은 교수는 "이번 탐방을 통해 간호학과 학생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간호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간호학과 홍의연(간호학과 3) 학생은 "화상 진료로 특성화된 병원 탐방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간호사의 직무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며, "향후 전문적인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동기 부여가 되었다"고 말했다.

〈편집부〉

간호학과

‘제1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114명 선서!!

우리대학교 간호학과(학과장 백수미)가 11월 2일 오후 2시 본교 대강당에서 ‘제1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거행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간호사로서의 학문적, 윤리적 의무와 역할에 대한 공식적인 서약 의식으로, 미래 간호사들의 자부심과 의지를 고취시키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선서식에는 황윤원 총장, 대한간호협회 충북간호사회 이명희 회장, 김철수 부총장, 하은호 의료보건대학장과 간호학과 선서생 및 교수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의식, 나이팅게일 선서에 이어 충북간호사회의 지역사회 간호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수여가 의미를 더했다.

충북간호사회 이명희 회장은 축사에서 “오늘의 촛불의식은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간호정신을 이어받아 일생을 희생과 봉사의 마음으로 헌신하겠다는 전문 간호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의미를 갖고 있다” 며, “환자에 대한 사랑과 전문성을 지닌 간호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우리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학생 114명은 학생 대표자의 촛불의식과 선서를 통해 전문 간호인으로서의 윤리와 책임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황윤원 총장은 “미래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과 돌봄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이에 맞게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 분야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 이라며, “오늘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통해 나이팅게일 정신을 마음 깊이 새겨 누구보다 훌륭한 직업인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대학교 간호학과는 2015년에 첫 졸업생 배출을 시작으로 매년 국가고시 최상위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재단 산하 종합병원을 비롯한 우수한 간호실습병원에서 양질의 실습을 시행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간호 전문인력 배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편집부〉

항공대학

Aero-K 항공 초청 취업특강 개최!



▲Aero-K 항공관계자 초청 취업특강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대학교 항공대학(학장 박상용)이 11월 9일 본교 상생홀에서 Aero-K 항공관계자 초청 취업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우리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의 청년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Aero-K 항공 초청 특강 중 첫 번째 시간으로 에어로케이 조창현 기장이 ‘Aero-K 회사소개 및 신입부기장 채용절차 안내’를 주제로 항공운항학과 교수 및 재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강사로 나선 에어로케이 조창현 기장은 “기장으로 가는 필수 단계마다 최선을 다하고, 남은 시간에도 채용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이라며, “학생들이 꿈에 대한 열정을 갖고 열심히 준비하여 자신의 목표하는 항공 전문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강에 참여한 항공운항학과 심보인 학생은 “이번 특강으로 에어로케이항공의 문화, 인재상, 운항승무원의 역할과 책임은 물론 항공사 채용 절차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고 말했다.

박상용 항공대학장은 “에어로케이는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로서 지역의 항공 전문인력 채용과 관련해 앞으로 중원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이후에도 항공 관련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오는 15일 Aero-K 부사장의 특강, 22일에는 현직 Aero-K 승무원의 특강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대학교 항공대학은 항공 산업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한 전문 교수진의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지역의 항공관련 산업을 선도하고, 국가 목표에 부응하며 국제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은 물론 무인항공 및 기계공학 등 항공사를 비롯한 각종 항공 산업 관련 기업에서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항공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편집부〉

비행교육원

항공운항학과 수시모집 지원자 ‘체험 비행’ 진행

우리대학교 비행교육원(원장 박상용)이 11월 25일~26일 양일간 전남 무안에 위치한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운항학과 수시모집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체험 비행’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대학교 비행교육원 교관 및 재학생들과 함께 참여해 실제 교육 기종인 미국 세스나 항공기(C-172)로 총 15명의 수시모집 지원자와 가족이 체험 비행을 경험했다.

우리대학교 항공운항학과는 수평비행, 무중력 체험 등 ‘체험 비행’을 통해 학과 및 비행 실습에 대한 관심도와 안전성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지원자들의 입학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진로 선택과 항공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중원대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잊지 못할 경험을 한 행복한 시간이었다” 며,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고, 항공인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운항학과 수시모집 지원자 대상으로 ‘체험 비행’ 행사를 진행했다.

박상용 항공대학장(겸 비행교육원장)은 “최근 코로나 이후 항공업계의 확장으로 취업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다시 신입생 지원율이 높아졌다” 며, 이에 “우수한 인재들이 중원대학교 항공운항학과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학과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 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융합공학과

김민우 학생, ‘2023 한국풍력에너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우수발표상 수상!





▲김민우 학생

우리대학교 융합공학과 석사과정 김민우 학생이 최근 열린 ‘2023 한국풍력에너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연구논문 발표로 ‘우수발표상’을 수상했다.

풍력발전기 관련 기업, 국가연구소, 대학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학회에서 김민우 학생은 이형우 교수의 지도와 함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3억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로 ‘8MW 대용량 풍력발전기용 요 감속기 가진에 따른 응답해석’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풍력발전기의 주요 부품 중 하나인 요 감속기에 대한 것으로 풍력발전기의 너셀은 로터에 의해 얻어진 회전력을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기 위한 모든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 시스템은 이런 너셀의 아래서, 너셀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여 풍력발전 시스템의 효율을 최대가 되게 하고, 풍력발전 시스템 전체에 작용하는 피로 하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내용으로 두산중공업에서 개발한 8MW급 풍력발전기 부품인 요 감속기의 설계와 진동해석을 수행한 연구 내용이다.

김민우 학생은 수상 소감으로 “먼저 제가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원까지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이형우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수상으로 연구자와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 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지도교수인 이형우 교수는 “힘든 연구과정을 이겨내며 좋은 성과를 얻게 된 김민우 학생이 매우 자랑스럽다” 며, “앞으로도 중원대 대학원의 학문적 위상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일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편집부〉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및 상생을 위한 '후원의 집' 캠페인 시행!



우리대학교는 7월 24일 괴산시장상인회(회장 이정우)와 협력하여 대학과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원대 후원의 집' 캠페인을 시행했다.

'중원대 후원의 집'은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와 대학의 발전을 희망하는 각종 업체 및 기관의 신청을 받아, 참여하는 업체는 매월 일정 금액을 대학 발전기금으로 후원하며, 대학은 참여업체에 후원의 집 벽시계를 부착하고, 대학 학보 및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고 업체 이용을 독려하여 상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캠페인이다.

이날 황윤원 총장, 이정우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괴산군 소재 능이랑(대표 김영숙)과 왕통가(대표 강혜숙)를 방문하여 후원의 집 벽시계를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후원의 집으로 참여하는 능이랑 김영숙 대표는 "중원대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으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중원대학교 학생들과 대학발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흔쾌히 후원의 집에 참여하게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황윤원 총장은 "코로나를 겪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원대학교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모든 후원의 집 업체와 괴산시장상인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지역사회와 상호 협력하여 상생하는 대학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대학교 후원의 집(가나다순)은 △경아두마리치킨 △괴산다슬기식당 △그집순대 △능이랑 △모던한끼 △미소야 △서울식당 △송쌤수제햄부대찌개 △수내닭꼬치충북괴산점 △아라펍(치킨신드롬) △알부자집 △왕통가 △우리매운탕 △이강식당명가닭갈비 △청풍면옥 △팔도강산매운탕 △피자나라치킨공주 △한우곰탕청솔 등 총 18개 업체가 상생 협력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대학교 후원의 집에 지역 업체와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대외협력팀(043-830-8071)으로 언제든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괴산군 수해현장 복구 봉사활동 나서



우리대학교가 7월 18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괴산군 청천면 후평리를 찾아 수해 현장 복구를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황윤원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우리대학교 축구부 등 60여 명은 이날 피해지역 주민들과 함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하천 범람으로 인근 주변에 생긴 진흙과 부유물을 걷어내고, 수해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정화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수해 피해 복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어지는 비소식에 걱정되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황윤원 총장은 "이번 수해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 학생들과 현장에 달려왔다"며,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기를 기원하며, 우리대학은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괴산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iN자연드림 친환경 식품' 물품 전달



우리대학교가 위탁 운영하는 괴산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도완)는 2023년 특화사업으로 'iN자연드림 친환경 식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괴산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7월 13일 괴산자연드림파크에서 자연드림에서 생산된 친환경 식품 1차 꾸러미를 괴산군에 등록된 어린이급식소 24개소에 전달했다.

'iN자연드림 친환경 식품 지원'은 자연드림씨앗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괴산군 어린이급식소에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가 영·유아기부터 고품질 식품 섭취를 통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학부모의 어린이급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도완 센터장(식품제약학과 교수)은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해 화학 첨가물이 최소로 사용되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식품을 어린이급식소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사업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관내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황윤원 총장,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우리 대학교 황윤원 총장은 7월 20일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회용품 제로(Zero) 챌린지'에 동참했다.

지난 2월 환경부에서 시작한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범국민적 친환경 캠페인이며, SNS를 통해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약속을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황윤원 총장은 동양대학교 이하운 총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하였으며, 다음 참여자로 충북대학교 고창섭 총장을 추천했다.

환경부로부터 그린캠퍼스로 선정된 우리대학교는 지난해 탄소중립 캠퍼스 구축 선포식을 열고 ▲녹색경영을 학교 운영의 기본 ▲전체 대학구성원과 지역주민 대상 녹색인재 양성 추진 ▲저탄소, 에너지 절감 기술과 인프라 완비 ▲녹색생활 실천, 탄소중립 캠퍼스 문화 전파 등 친환경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황윤원 총장은 "일회용품 줄이기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중원대를 탄소중립 캠퍼스 실천의 장으로, 전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녹색생활 방식을 배우고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친환경 생활 실천운동, 환경정화 봉사활동 등 다양한 친환경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대학교는 제4기 그린캠퍼스 총장협의회 의장대학 수행, 2018년 그린캠퍼스 조성 우수대학 선정, 2022년 그린캠퍼스 조성사업 선정 등 국내 대학의 그린캠퍼스 조성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협력, 그린캠퍼스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마련, 그린캠퍼스 선정대학 간 우수사례 공유 등 지속적으로 그린캠퍼스 조성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편집부〉



『중원워터피아』, 지역사회 취약계층 무료 개방으로 상생

우리대학교는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충북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내 야외수영장(중원워터피아)을 무료 개방했다.

본교에 따르면 이번 무료 개방은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최대 가치로 삼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함이다.

무료 개방 대상은 상대적으로 여가 문화생활 기회가 적은 지역 내 취약계층으로 다문화가정, 새터민, 보육원 등이며, 관련 기관의 요청으로 확인이 되면 무료입장 쿠폰을 제공했다.

현재 중원워터피아는 일반기준 성인 18,000원/소인(만 12세이하) 15,000원의 입장료이지만, 충북도민을 위한 지역사회 할인으로 성인 15,000원/소인 12,000원으로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황윤원 총장은 "늘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충북도민 할인에 이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야외수영장을 무료로 개방하게 되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가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대학교는 국내 유일하게 교내에 설치된 야외수영장(중원워터피아)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안전한 물놀이 장소 및 가족 수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여가문화의 장소로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위해 여름철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편집부〉

괴산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깨끗한 조리실 만들기 Project' 지원



우리대학교가 위탁 운영하는 괴산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도완)는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등록시설 어린이급식소 6개소를 대상으로 조리실 환풍기, 후드 등 청소 및 노후 환풍기 교체 사업인 '깨끗한 조리실 만들기 PROJECT'를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급식소의 환풍기 및 후드 등의 청소로 조리 중 음식에 기름때가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식중독을 사전 예방하여 관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자 마련하였다.

기름 찌든때 등 오염으로 청소에 어려움을 겪던 환풍기 및 후드, 가스렌지, 벽면 등을 전문 장비 및 인력을 갖춘 외부업체 고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세척 · 소독함으로써 청결한 조리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사업에 참여한 조리사는 "전문업체를 통해 청소하여 평소 청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부분의 기름찌든때가 모두 깨끗이 제거되어 매우 만족스럽다" 며,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조리실 환경을 유지하여 더욱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도완(식품제약학과 교수) 센터장은 "관내 어린이가 청결한 급식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어린이급식소의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편집부〉

괴산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집합교육 인형극' 실시



우리대학교가 위탁 운영하는 괴산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도완)는 10월 6일(금) 등록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 12개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인형극)을 실시했다.

이날 공연은 괴산군 관내 어린이들이 올바른 이 닦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바른 이 닦기' 를 주제로 진행한 이번 인형극은 '피터팬의 치아 튼튼 모험' 을 부제로 ▲치아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구분하기 ▲올바른 칫솔질 방법 ▲구강 관리 실천의 중요성 등을 배울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동화 캐릭터의 연기와 즐거운 음악, 춤을 선보여 관심을 유도하였으며, 어린이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이야기로 치아 건강의 중요성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김도완(식품제약학과 교수) 센터장은 "어린이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인형극을 통해 올바른 이 닦기 습관을 형성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면서, "앞으로도 올바른 식습관 확립을 위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편집부〉

연극영화학과 고병정 교수, '괴산의 소리를 담다, 제2회 별멍영화제' 개막



우리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고병정 교수가 대표로 겸직하고 있는 충북 괴산에 위치한 비영리기관 '푸른영화학교' 가 오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CGV 청주율량과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제2회 별멍영화제' 를 개막했다.

제2회 별멍영화제는 괴산지역의 역사와 문화 보존, 인구 소멸 현상에 대한 인식 제고, 지역사회 활력 회복, 그리고 영화 예술을 통한 지역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번 영화제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담아내 공감과 이해를 도모하는 것 또한 볼거리 중 하나로, 깊은 이야기들을 통해 지역사회 활력을 회복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며, 영화 예술을 활용하여 방문객들에게 괴산지역의 매력을 알림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VR 기술과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실험을 도전하며, 관객들이 괴산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인구 소멸 문제에 대한 공감과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푸른영화학교의 정상현 운영위원장은 "괴산은 역사와 전통이 풍부한 곳이지만 인구 소멸로 점차 사라져가는 중" 이라며 "본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보존하겠다" 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영화제를 통해 국내외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 소멸 현상에 대한 관심을 적극 높일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제2회 별멍영화제 조직위원장 고병정(연극영화학과 교수)은 "국내 여러 지역에서 인구 소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도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면서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담아 그 아픔과 현재 상황을 알림으로써 해결 방안 모색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제2회 별멍영화제' 의 자세한 사항은 별멍영화제 공식 웹사이트와 제2회 별멍영화제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부〉

제2회 탄소중립 캠퍼스 활성화 포럼 개최!



우리대학교 그린캠퍼스사업단(단장 이홍찬)은 11월 23일 대학 상생홀에서 '충북을 선도하는 대학의 탄소중립 캠퍼스 플랫폼 구축' 을 주제로 '제2회 탄소중립 캠퍼스 활성화 포럼' 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우리대학교 그린캠퍼스사업단과 충청북도지속가능캠퍼스협회, 한국에너지공단 세종충북지역본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환경보전원, (사)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 충청북도탄소중립지원센터, 해성엔지니어링(주), ㈜제이와이이엔씨가 후원 ·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황윤원 총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포럼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공동의 비전을 나누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발굴하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길 기대한다" 고 당부했다.

이날 포럼에는 탄소중립 관련 지자체, 단체, 기업, 대학 등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캠퍼스 구축의 현황 및 충청북도 대학의 탄소중립 캠퍼스 플랫폼 구축방안에 대한 비전과 혁신 전략을 조명하고 국가적인 목표인 2030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 캠퍼스 실현을 위한 산 · 학 · 연 협력체계의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부적으로 △충청북도의 탄소중립 현황 및 전망(문윤섭 충청북도탄소중립지원센터장) △한신대학교 그린캠퍼스사업 추진 사례 (이상헌 교수) △경상국립대학교 그린캠퍼스사업 우수 사례(신승구 교수) △중원대학교 그린캠퍼스사업 추진 사례(이홍찬 교수) △충청북도 대학의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도 제고방안(최현식, (사)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 사무총장) △탄소중립을 위한 시스템 도입 방안 1(이광희, 해성엔지니어링(주) 대표) △탄소중립을 위한 시스템 도입 방안 2(이용민, ㈜제이와이이엔씨 본부장) 등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미옥(나사렛대 교수, 천안시환경교육센터장) 좌장과 김재진(강동대 교수), 이규형(괴산군청 미래전략담당관), 송규진(한국에너지공단세종충북지역본부 팀장), 이영기((사)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 사무국장) 토론자가 '충청북도 대학의 탄소중립 캠퍼스 플랫폼 구축 방안' 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홍찬 우리대학교 그린캠퍼스사업단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대학의 유휴부지 10%를 대상으로 대학에서 사용하는 총 전력량의 30%정도를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을 통해 자립화함으로써, 대학의 탄소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고 말했다. 〈편집부〉

황윤원 총장, 상호존중하는 행복한 학교만들기 캠페인 참여



우리대학교 황윤원 총장이 10월 17일 학교, 교사, 학부모가 '상호존중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교권 침해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 인권 존중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 확립을 위하여 지난달 11일부터 시작된 캠페인이다.

황윤원 중원대학교 총장은 윤현우 충청북도체육회장으로부터 지목받아 '상호존중으로 행복한 학교를'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찍은 인증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다음 릴레이 주자로 한국교원대 김종우 총장, 대원대 김영철 총장을 지목했다.

황윤원 총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미래인재를 키우는 학교교육 현장의 구성원 모두가 서로 소통하고 상호존중과 배려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 며,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대학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편집부〉

사회봉사단, '사랑의 헌혈' 행사 실시

우리대학교 사회봉사단(단장 이상열)은 9월 13일 교내 캠퍼스에 마련된 헌혈차량에서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과 함께 헌혈인구의 저변 확대 및 지역사회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사랑의 헌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난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매 학기 2회씩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헌혈 바로 알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통해 생명 존중과 나눔을 실천했다.

헌혈 행사에 참여한 학생은 "사랑의 헌혈 행사 참여를 통해 혈액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꼈다" 고 말했다.



이상열 단장은 "중원대는 정기적인 봉사와 헌혈 행사를 통해 사회봉사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을 통해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우리대학교 사회봉사단은 매년 4회 이상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과 함께 단체 헌혈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을 이어나가고 있다. 〈편집부〉

‘대학생 도시농부지원단’ 업무협약 체결!

충북도(도지사 김영환)와 충북지역총장협의회(회장 황윤원, 중원대 총장), 농협중앙회충북본부(본부장 이정표), 충청북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홍성규)는 6월 28일 충북도청에서 ‘대학생 도시농부지원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18개 대학 학생들이 여름방학 기간 도시농부 활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농업에 대한 관심 제고와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대학생 도시농부지원단’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와 농촌을 이끌어 나갈 청년 육성을 위한 교류 · 협력 등 충북도와 도내 대학 및 농협, 수요농가 간 상호 협력을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대학생 도시농부지원단 참여자의 일손지원 후 지역 관광지 홍보 · 관람 등 후속 단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참여 대학생과 가족 · 친지 등이 지속적으로 충북에 찾아올 수 있도록 관계인구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생 도시농부지원단’은 농가에서 하루 4시간 근로하면 도와 시 · 군이 하루 인건비 6만원 중 40%인 2만 4000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요농가에 일손 지원을 하게 된다. 〈편집부〉


▲대학생 도시농부지원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체육회, 스포츠 산업의 발전 및 선진모델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약 체결!



▲충청북도체육회와 스포츠 산업의 발전 및 선진모델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대학교는 7월 4일 오후 2시 본교 교무회의실에서 충청북도체육회(회장 윤현우)와 스포츠 산업의 발전 및 선진모델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리대학교 황윤원 총장과 충북체육회 윤현우 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MOU를 체결하고, 상생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스포츠산업 연구 공동 참여 및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산업 취업 및 고용 정보 공유 △현장실습, 인턴실습 등 공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지역사회 문화 활성화에 관련된 업무 협력 △팀 창단 및 전문체육, 생활체육 육성 협력 등이다.

황윤원 총장은 “중원대학교가 충청북도 체육발전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충북체육회에 감사드리며, 양 기관 상호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우 충북체육회 회장은 “중원대와의 상호협력과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스포츠산업 관련 인재육성 및 스포츠 선진모델의 활성화에 앞장서 충북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주)심네트와 산학협력 MOU 체결



▲(주)심네트와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대학교는 7월 26일 오전 11시 본교 교무회의실에서 (주)심네트(대표이사 차진섭)와 방산분야 전문 인력양성 및 국방 디지털 혁신 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윤원 총장과 (주)심네트 차진섭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초대형급 무인잠수정, 육군 소부대 과학화 체계,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 K-9●상륙돌격장갑차●상륙기동헬기 등 무기체계 사업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확장현실(XR), M&S 시스템 등 전력지원체계 사업 ▲연구시설의 공동이용 및 학술, 기술정보 공유 ▲방산 우수인력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교류 ▲중원대학교 대학원 국가안보융합학과를 통한 긴밀한 산학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양 기관의 복지시설 사용 시 적극적인 상호협력 추진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황윤원 총장은 “국가안보 및 첨단 국방기술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할 국가안보 전문가 및 글로벌 공공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원에 국가안보융합학과를 신설했다”며 “(주)심네트와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로 협력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방산분야 현장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심네트 차진섭 대표이사는 “중원대학교와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우수 인재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치고 방위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심네트는 방산 소프트웨어,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등 국방 M&S 분야의 선두 기업으로 첨단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세계적인 국방정보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와 국가에 대한 기여를 모토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편집부〉

진천군, 지역경제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진천군과 지역경제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대학교와 진천군은 7월 4일 오후 4시 대학본관 교무회의실에서 지역경제 및 스포츠산업 발전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윤원 총장과 진천군 송기섭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발전과 번영을 함께 이뤄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해 K-컬쳐 스포츠산업의 발전과 정착 및 지역사회 문화 활성화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 산업의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지역 산업진흥 및 혁신성장 연계를 통한 핵심 인재 공동 육성▲지역 수요 기반 지역혁신사업 공동 개발 및 추진▲스포츠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및 기반 시설 공유▲지역사회 문화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정보교환 및 공동협력 등이다.

황윤원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대학과 지역사회가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협약을 바탕으로 진천군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우리 대학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기섭 군수는 “관학이 힘을 모아 지역발전을 함께 이뤄나가자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원대학교와 긴밀하게 교류하고 협력하여 지역과 대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안양공업고와 교육협력 협약체결!



▲안양공업고와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대학교는 8월 9일 본교 교무회의실에서 안양공업고등학교(교장 최동원)와 교육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리대학교 황윤원 총장, 안양공업고 최동원 교장을 비롯한 양교 주요 보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학-고교 간 학생 진로 · 진학지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상호 지원과 협력함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양교는 이번 협약으로 ▲학생 진로 지도를 위한 지원 ▲진로 · 진학지도를 위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협력 ▲프로그램 및 특강 진행을 위한 강사 지원 등 고교 학생들의 체계적인 진로 · 진학지도를 위한 협력 사항에 합의하기로 했다.

황윤원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양공업고 학생들의 진로 · 진학지도를 위한 입시에서부터 교육과 취업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이뤄져 양교가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동원 안양공업고 교장은 “양교의 우수한 인적 · 물적 교육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서로 상생을 도모하는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공업고등학교는 1948년에 개교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명문 공업계 특성화고등학교로 현재 패션소재디자인, 화학공업, 전기제어시스템, 3D건축디자인, 건설기술행정, 스마트팩토리기계, XR융합응용학, 반도체CS엔지니어, 드론부사관 등 총 9학과가 개설돼 있다. 〈편집부〉

충북화장품산업협회-(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충북지회 업무협약 체결!

우리대학교는 8월 28일 본교 교무회의실에서 충북화장품산업협회,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충북지회와 미래 화장품 및 뷰티산업의 전문 인력양성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리대학교 황윤원 총장, 충북화장품산업협회 김홍숙 부회장,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충북지회 김은형 지회장을 비롯한 각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화장품 및 뷰티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공동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대학교육 및 교재개발 참여에 관한 사항 △지도 및 실습 프로그램 협력에 관한 사항 △현장실습, 연수, 위탁교육 협의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 및 기자재의 공동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충북화장품산업협회는 충북 화장품 산업을 대한민국 K-뷰티 산업의 랜드마크로 성장시키기 위해 민, 관, 학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화장품 · 뷰티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충북화장품산업협회,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충북지회와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충북지회는 충북지역 피부미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사회적지위향상, 업권확대, 최고의 기술력을 보급하여 국민의 피부미용건강은 물론 뷰티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황윤원 총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미래 화장품 · 뷰티 산업을 이끌어 갈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전문 인재 육성과 더불어 충북지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K-뷰티 산업 발전을 견인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대학교 K-뷰티 관련학과인 뷰티메디컬학과는 최첨단 실습실과 최신 뷰티 트랜드 실무강의를 통해 학생들의 현장 적응력을 키우는 교육체계 구축에 힘쓰며 민,관,학 산학협력으로 재학생들에게 실무 교육, 취업 연계를 하며 높은 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편집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사)진천중앙시장상인회 협약체결!

우리대학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센터장 성희정), (사)진천중앙시장상인회(회장 이영자)와 9월 5일 14시 본교 교무회의실에서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리대학교 황윤원 총장을 비롯한 김형수 기획처장, 이상열 대외협력실장, 최상범 창업보육센터장, 주호균 대학재정지원사업단 담당이 참석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 성희정 센터장, 박상우 차장, 배영숙 대리와 (사)진천중앙시장상인회 이영자 회장, 유혜경 고문이 참석했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중원대학교 재학생 및 유학생 취 · 창업 연계 사업 지원 △전통시장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대학혁신 사업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한 의견 및 자문 지원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우리대학교 재학생들의 취 · 창업지원 확대에 나섰다.

황윤원 총장은 "전국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 · 상점가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음성센터 및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롤모델이 되어온 (사)진천중앙시장상인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학과 지역상생의 협력을 시작하고 학생들에게 수준높은 취 · 창업지원환경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며, "양개 기관과의 실질적인 협력으로 취업역량 강화와 지역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 (사)진천중앙시장상인회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희정 센터장은 "대학이 지역과 상생을 고민하고 발전의 토대로 삼는 중요한 시기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사)진천중앙시장상인회가 같이 할 수 있어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한다" 며, "소상공인진흥공단을 비롯한 (사)진천중앙시장상인회가 가진 경험과 인프라를 제공하여 대학의 지역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전했다. 〈편집부〉

LIG넥스원, 국방산업기술분야 산학협력 MOU 체결!!

우리대학교는 9월 6일 교내에서 LIG넥스원(대표이사 김지찬)과 국방산업기술분야의 긴밀한 산학협력 및 방산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리대학교 황윤원 총장과 LIG넥스원 김지찬 대표이사, 최윤희(前 합참의장) 우리대학교 석좌교수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상호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기술교류 및 컨설팅 지원 ▲국방산업기술분야 긴밀한 산학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방산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교류 증진 등 성공적인 협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LIG넥스원과 국방산업기술분야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대학교 황윤원 총장은 "국방R&D · 학술 인프라 등 방위산업분야의 교육 · 연구 전문성을 갖고 있는 중원대와 국내 방위산업 분야를 이끄는 핵심 기업인 LIG넥스원과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으로 큰 시너지가 기대된다" 며 "양 기관이 갖고 있는 인적 · 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방산 전문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지찬 LIG넥스원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LIG넥스원의 축적된 노하우와 특화된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중원대의 우수한 인재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치고 방위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차세대 국방역량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LIG넥스원은 40여 년 동안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위한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며 우주항공, 유도무기, 감시정찰, 통신, 항공전자 · 전자전 등 방위사업 전 분야에서 K-방산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종합 방산업체이다. 〈편집부〉

두리골프클럽, 상호협력 업무 협약 체결!



▲두리골프클럽과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대학교와 증평 두리골프클럽(대표이사 최우락)은 11월 13일 13시 본교 교무회의실에서 지역사회 골프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리대학교 황윤원 총장, 두리골프클럽 최우락 대표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시설 이용 시 소속 구성원 할인가 적용 △골프대회 등 프로그램 연계 협력 △골프 전문인력 양성과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 공동 활용 △상호발전을 위한 의견교류 및 정보교환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황윤원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수준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양 기관의 실질적인 협력으로 전반적인 골프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최우락 대표이사는 "양 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설과 장점을 적극 활용하는 골프분야의 좋은 산학협력 모델이 되길 기대하며, 골프산업의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고 말했다.

한편 증평에 위치한 두리골프클럽은 자연과 어우러진 넓은 부지에 지역내 최대비거리, 최대타석의 인도어 연습장을 비롯한 골프연습의 유익함을 제공하기 위한 최신식 프리미엄 시설을 갖추고 있다. 〈편집부〉

충북문화재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충북문화재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대학교는 10월 12일 본교 교무회의실에서 충북문화재연구원(원장 이종윤)과 전통문화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상호협력체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리대학교 황윤원 총장과 충북문화재연구원 이종윤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상호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협력 관계 증진 및 각종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충북 역사문화진흥을 위한 공동 연구 · 연구인력 교류 ▲학생 연계 교육프로그램(현장실습, 인턴십) 공동 개발과 운영 지원 ▲역사문화자료와 출판물, 학술DB 등 학술정보에 대한 상호 교류 ▲전통문화콘텐츠 활용(전시 · 교육 · 기획)에 대한 공동 개발 · 상호 교류 ▲매장문화재 발굴 · 조사 지원에 대한 상호 교류 ▲전통문화와 인성교육 연수에 대한 상호협력 및 지원 ▲기관 시설물의 상호 이용 협조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대학교 황윤원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강점과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충북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충북 역사문화 진흥 등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충북문화재연구원 이종윤 원장은 "충북의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더불어 지역의 역사문화 진흥 등 양 기관이 협력하여 충북의 역사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2005년 설립된 충북문화재연구원은 충북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 관리와 학술연구를 통한 선제적인 문화유산 정책을 추진하여 충북 도민과 문화유산이 함께 공존하는 풍요로운 충북을 만들기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전문연구기관이다. 〈편집부〉

제33호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전문직 간호사로서 한 걸음 내딛는 중원대 간호학과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제 1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올해도 어김없이 중원대학교 간호학과의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내빈분들과 학부모님들께서 미래 간호사들의 첫 발걸음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볼까요? 김서영 기자 seoyeong0622@jwu.ac.kr



중원대학교 제 1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2023년 11월 2일 오후 2시 본교 대강당에서 백수미 학과장님 진행 하에 거행되었습니다.

이번 선서식에는 황윤원 총장님, 대한간호협회 충북간호사회 이명희 회장님, 김철수 부총장님, 하은호 의료보건대학장님과 간호학과 선서생 및 교수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의식, 나이팅게일 선서에 이어 충북간호사회의 지역사회 간호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수여가 의미를 더했습니다.

1학년의 시선에서 하늘같은 선배님들이 전문간호사에 한 걸음 내딛는 모습을 보고, 자랑스럽고 울컥한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칼각을 맞추어 초를 나누어 키고, 반듯이 인사하며, 나선식 전문을 다 같이 또박또박 읽는 모습. 남들이 보기엔 정말 쉬워 보이는 것이 본래 수많은 연습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번 나선식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리허설하는 모습을 지켜본 입장에서 정말 대단해 보였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이 대견스러운데, 여러분을 키우신 부모님, 가르치신 교수님은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우셨을까요?

What's the 나이팅게일 선서식?

여러분 나이팅게일 선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나이팅게일 선서는 간호사로서 헌신해야 할 윤리와 간호원칙을 담은 선서문으로, 희생 · 봉사 · 장인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보면,



영국의 간호사이자 현대 간호학의 창시자입니다. 크림 전쟁 당시 간호사로 활동하였으며, 현대 간호의 기틀을 잡고 발전시켰기에 현대 간호의 대모로 불립니다.

나이팅게일의 업적

나이팅게일은 영국의 간호사로, 1854년 크리미아 전쟁 중 병원에서 적용한 청결한 환경과 간호법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녀의 기여로 감염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접근 방식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잘 정돈된 환경과 간호는 환자의 회복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알아두면 좋은 코너 속의 코너! 〈백의의 천사와 등불 든 여인〉

학우 여러분! 다들 백의의 천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이처럼 한국에서는 나이팅게일의 별명이 유독 백의의 천사로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녀를 칭하는데 자주 올라오는 명칭은 등불 든 여인입니다. 이는 나이팅게일이 간호사로서 크게 활약한 크림전쟁에 대해 써진 타임지의 한구절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입니다.

She is a "ministering angel" without any exaggeration in these hospitals, and as her slender form glides quietly along each corridor, every poor fellow's face softens with gratitude at the sight of her. When all the medical officers have retired for the night and silence and darkness have settled down upon those miles of prostrate sick, she may be observed alone, with a little lamp in her hand, making her solitary rounds.

그 병원들에서 그녀는 한치의 과장도 없이 "섬기는 천사" 였다. 복도 하나 하나를 그녀의 가녀린 모습이 지날 때마다, 모든 이들의 얼굴이 그녀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누그러졌다. 모든 의료진과 군의관들이 밤을 맞아 처소로 돌아가고 적막함과 어둠이 길게 누워있는 병자들 위에 내려앉을 때면, 작은 등불을 그 손에 들고 홀로 순회를 돌고있는 그녀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미국의 시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의 시 〈산타 필로메나〉에 다시 등장하면서 더욱 유명해집니다.

Lo! in that house of misery
오! 저 고통의 집 안에

A lady with a lamp I see
등불을 든 한 여인이 보이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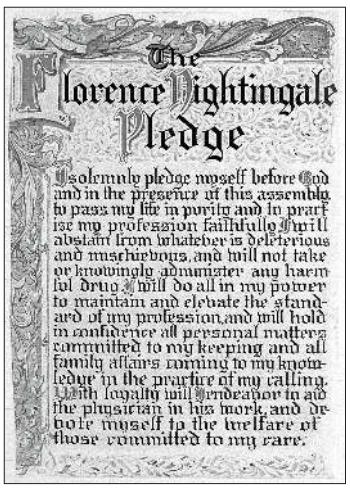
Pass through the glimmering gloom,
희미한 어둠 속을 지나가며

And flit from room to room.
방에서 방으로 스치는구나

위의 내용처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나이팅게일의 별명은 '백의의 천사'가 아닌 '등불 든 여인'입니다. 코너 속의 코너로 이러한 내용을 짚고 가니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나요?

망치를 든 나이팅게일?

여담으로, 크림 전쟁 당시 군에서 물자를 보급하지 않자, 그녀가 직접 망치를 들고 가 군 창고 문을 따고 의료 물자를 강탈해 간 적이 자주 있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그녀의 저돌적이고 개혁가적인 모습을 포함하여 '망치를 든 여인'이라





며 불리기도 했다네요.

다시 중원대학교 나선식으로 돌아가서! 나이팅게일 선서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촛불을 밝힌 뒤 힘차게 선언하는 "나선식 전문 낭독시간" 입니다.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114명의 학생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외친 전문을 함께 살펴봅시다.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느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으며 간호하면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나는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한 손에는 나선식의 꽃인 촛불을 들고 나머지 한 손은 선서를 하며 이 선언문을 읽는 선배님들을 보니 멋있어 보였고,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다들 눈치 채셨나요?

나이팅게일의 설명, 업적, 나선식의 의미를 위해서 설명했지만!

왜 간호학생들이 나선식을 진행하는지 말씀드리지 않았죠! 알고 넘어갑시다~

Why do 나이팅게일 선서식?

우리나라의 경우 간호학과 실습에 나가기 전 (보통 2학년이나 3학년 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실시하게 됩니다. 간호사로서 필요한 기초간호학 수업을 마치고 임상 현장에 실습을 나가기 전, 간호학도들은 선서식을 통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간호사의 정체성을 가지는 계기를 갖습니다. 많은 경우 선서의 낭독과 함께 촛불, 나이팅게일 휘장, 간호 복장 등 다양한 상징물을 착용하여 선서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촛불은 나이팅게일의 등불 및 간호 정신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의례는 간호사로서의 신념과 가치를 다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하네요!

인터뷰 TIME!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제 11회 나선식에 참여한 선배의 인터뷰도 빠질 수 없죠!
현 2학년 선배님 한 분을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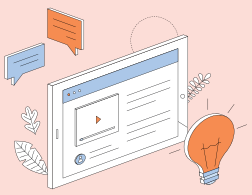
Q. 나선식을 하면서 느꼈던 점, 앞으로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 말씀해주세요!

A. 나선식을 진행하면서 이제 곧 제가 실습을 나간다는 사실이 크게 다가왔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실습을 실수 없이 잘할 수 있을까 대한 걱정도 되면서 설레는 마음도 함께 다가왔습니다, 또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학생 간호사가 아닌 실전에서 최선을 다하는 간호사가 되었을 시 저는 치료에만 중점을 두는 간호사가 아닌 환자 중심에서 공감을 하고, 위로도 하며 전인간호를 실행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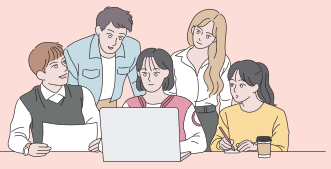
나머지 선배님들도 마음에 항상 자신이 되고 싶은 간호사가 다들 있으신가요? 항상 그 마음을 잃지 마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33호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조별과제

조금만 노력하면 별거아닌 과제



조별과제는 대학교에 들어오면 한 번쯤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과제인데요,
조별과제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사소통 및 협동심이나 리더쉽을 배우면서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팀 전체의 결과를 보고 점수를 주다 보니 열심히 참여하지 않고 점수만 잘 받으려고 하는 프리라이더가 많아 공정하지 않다는 점도 있는데요,
NEWNEEK에 따르면 조별과제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한 2,107명중 614명(29.1%)가 '조별과제는 스트레스만 주는 수업방식으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이런 만큼 조별과제는 피할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과의 동기 또는 선배님들과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낯설고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 새내기 같은 학생들을 위한 조별과제 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러 가실까요?

이기연 기자 20191190285@jwu.ac.kr

1. 자료는 신뢰도 높은 자료를 활용하기

조별과제에서 역할분담은 주로 자료조사, PPT제작, 발표 이렇게 3개의 파트로 나뉩니다. 이중 새내기분들이 주로 자료조사를 맡는 경우가 많은데, 인터넷 검색을 해서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거나 나무위키나 지식in에서 찾은 내용을 그대로 사용해서 자료조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자료의 정보가 확실하지 않고,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서 논지를 뒷받침 해야합니다.

따라서 학술적인 연구에 대해 체계적으로 쓰인 논문을 주로 이용해서 자료조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원대학교 상보도서관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 dCollection, Kiss, DBpia, RISS, KoreaScholar, ScienceDirect 같이 논문을 검색하고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와 여러 ebook이 올려져있는 bookers 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자료조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PPT는 최대한 깔끔하고 심플하게

PPT발표는 한 페이지에 글자를 빽빽이 넣어 그냥 읽으면서 발표하는 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발표가 정말 지루하고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PPT를 만들때에는 키워드와 그림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외 내용들은 최대한 최소화하여 발표를 보는 사람들이 프레젠테이션을 볼때 한눈에 들어오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Canva나 Naver Post 같이 무료로 PPT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는 곳도 많지만 직접 만들게 된다면 최대한 2~3가지 색깔내에서 간단하게 구성해서 내용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나 중요한 키워드에는 밑줄을 긋거나 글자색깔을 다르게 해서 내용의 이해를 도울 수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픽토그램을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Flaticon이나 Freepik에서 무료로 픽토그램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발표는 낭독이 아니다

발표를 맡게 되었다면, 앞서 말했듯이 PPT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낭독하게 된다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철저한 자료조사와 잘 만든 PPT가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대본을 만들어서 말할 내용을 준비하되 발표하고자 하는 자료를 충분히 이해하고 연습하여 대본숙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대본을 전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틀만 외운 후 잠깐잠깐 대본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만 대본을 숙지하면 됩니다.

대본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책을 읽듯이 발표하는 것은 발표를 듣는 입장에서 집중도 안되고,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들과 가끔은 눈도 마주치며 발표할 수 있는 여유는 대본숙지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소리와 말의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발표를 할 때 마이크가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발표를 할 때 긴장을 해서 너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도 듣지 못하고 자칫 웅얼거리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아 집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의 속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과제마다 발표시간이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책을 읽듯이 빠르게 말하지 않고 적당한 속도로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시간을 재보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스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발표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면 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발표를 하다보면 화면을 봐달라고 하거나, 첫 번째, 두 번째와 같이 순서를 표현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손으로 화면을 가리키거나 숫자를 표현한다면 듣는 사람들을 주목 시킬 수 있어 발표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 질 수 있습니다.

4. 모임은 최소 두 번

과제에 따라 가져야하는 모임의 수도 다르겠지만, 비교적 간단한 조별과제로 모임은 최소 두 번 이상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각기 다른 스케줄에 조모임 시간을 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카카오톡 회의 등 온라인으로 조모임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오프라인 회의의 경우 집중도가 비교적 높은 반면, 온라인 회의의 경우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서핑을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SNS을 하는 등 다른 일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만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회의와 달리 일반적인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표정, 말투를 비롯한 비언어적 의사소통까지 가능한 오프라인 회의는 더 높은 수준의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의 합의점을 더욱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조별과제의 진행 역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5. 발표준비는 미리미리

PPT발표를 할때 보통 메일이나 USB, 기타 매체를 통해서 PPT파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신이 PPT에 쓴 폰트가 발표를 할때 사용하는 컴퓨터에 없어 글씨가 깨지거나, 이미지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거나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는 등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을 저장할때는 PDF형식으로 저장을 해서 글씨가 깨지는 걸 방지하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저장을 해서 PPT에 있는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아도 따로 저장해준 파일을 사용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뒤 발표를 하는 날에 미리 일찍와서 파일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 최고의 교수님 그 잡채 시즌 2

안녕하세요, 중원대학교 학우분들! 학교생활은 잘 하고 계시나요? 우리 대학에는 많은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교수님을 학생들 추천을 받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최고의 교수님으로 추천된 역량교양학부의 황연화 교수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영 기자 seoyeong0622@jwu.ac.kr

Q.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중원대학교 교양 대학 역량교양학부 황연화 교수입니다. 유년시절, 시골(문경)에서 다정다감하게 옛 설화와 사랑을 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부모님 품에서 자랐기에 그때의 기억이 아련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그림을 전공으로 선택하다 보니 유년의 추억들이 회화의 모티브로 자주 등장합니다. 한국화의 수묵과 채색화, 민화, 규방공예, 문인화 등 우리의 전통화법을 학습하고 재해석으로 화폭에 담는 작업은 미술사 박사 학위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혼(DNA)이 담긴 예술이 뭔가? 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설명보다는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예술가적 자세와 실력 이전에 인성이 우선이다. 라는 선배들의 조언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자연" 청년 시절부터 따라다니는 작품의 일관된 제목입니다. 할머니, 어머니, 이웃들이 사용하던 옛날 천들, 즉 무명천의 이불보, 보자기, 버선, 한복, 삼베와 명주 등 이미 사용한 흔적의 천들을 모아, 잇고 깁고 꿰매고 하는 작업의 공정을 거쳐 그 위에 다양하고 작은 조각 천을 여기저기 붙여 바탕을 완성하고 붓과 연필, 색 천 조각 등으로 유년시절을 기록하듯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공정의 작업은 과거, 대구 "올해의 청년작가상" 뽑혀 대작 중심의 작품을 선보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근자에 들어 우연적 행위와 판화기법을 바탕에 깔고 그 위에 종이비행기, 종이배, 도자기, 꽃, 문자도, 집 등을 절제와 단순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 중 함 을 꼽으라면 작가 활동으로 개인전이나 공모전 수상, 심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봉사활동이나 교수의 품위나 임무도 특별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미술공모전 그랑프리 수상, 미국대통령상 금상 수상, 서울국제비엔날레 우수작가상" 은 봉사와 노력에 대한 보답이라고 봅니다. 특히 여러분(학생)의 사랑이 듬뿍 담긴 "우수강의상" 은 저에게는 그 어떠한 것보다 소중한 보물입니다.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Q.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소통과 토론, 20살의 초상과 표현, 창의적 발상론은 어떤 교양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제가 교양대학에서 가르치는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토론" 이라는 교과목은 딜레마 상황을 통해 인간의 심리를 학습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적 및 윤리적 상황을 깊게 이해하고 소통과 토론 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복잡한 상황에서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표현 능력을 키우며, 다양한 관점과 감정을 고려하면서 타인의 입장과 생각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며 원활한 소통 능력을 개발합니다. "20살의 초상과 표현" 은 20대 청춘들의 삶, 갈등, 꿈을 탐색하면서 학생들은 진로와 목표 설정, 자아 발견,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돕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진로 선택, 사회적 갈등과 다양성 이해, 그리고 내면적 성장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소통과 공감 능력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젊은이들은 더 풍요로운 대학 생활과 향후 삶의 설계와 실현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창의적발상론" 이라는 교과목은 생활 속의 사례와 창의고수들의 숨겨진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학생들은 창의성을 다양한 영역에서 탐구하고 융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며, 창의적 발상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창의성을 현실 세계에 응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Q. 교수님이 추구하시는 수업방식과 학생들에게 어떤 교수가 되고 싶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업 방식은 학습자 간 쌍방적 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인생을 확장하고 자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며 전통적인 교수 주도의 강의 형식이 아닌 학생 주도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토론과 팀 프로젝트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며 협력과 리더십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경험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고, 주체적으로 학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실로 다가가고 소통하며 즐기는 가운데 학생들의 미래에 도움 되는 교수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전적 교육방식은 학생들에게 자유롭고 창의적인 발상으로의 전환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선배로서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발상과 창의의 기회를 스스로 찾게 하고, 어디서든지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목적한 바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지를 심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들에게 좋은 인성과 노력을 토대로 내면적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교수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로 여기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Q. 중원대학교에서 만들고 싶은 새로운 교양과목,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대사회에서 부족해 가고 있는 것이 "도(道)와 덕(德)" 입니다. 그러함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인성과 예술에 대한 이해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거치면서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올곧은 정신과 예술의 미적 접목을 통해 현대사회의 심리치료에 보탬이 되는 과목을 개설하고 싶습니다.

학생 인터뷰

A학생 : 임상병리학과 이광재 (소통과 토론 수강 중)
B학생 : 간호학과 곽채민 (20살의 초상과 표현 수강 중)
C학생 : 간호학과 탁주은 (창의적 발상론 수강 중)

Q. 본인이 수강 중인 교양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A학생 소통과 토론을 듣고 있습니다. 소통과 토론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과 교수님께서 함께 토론하는 수업입니다. 매번 달라지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면서 나의 의견이 바뀌기도 하고, 남의 의견을 바꾸게 되기도 하는 흥미로운 수업입니다!

B학생 20살의 초상과 표현을 듣고 있습니다.

C학생 "창의적 발상론" 을 수강 중입니다. 창의적 발상론은 창의력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를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시는 수업입니다.

Q. 학생들이 생각하는 황연화 교수님의 수업 스타일은?

A학생 학생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어디서나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이해해주시고 분위기가 자유로워 누구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수업입니다!

B학생 1학기 때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황연화 교수님의 수업을 총 5개 수강하면서 처음에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실 때 "00아~" 라고 친근하게 불러주셔서 교수님과 학생들 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사소한 것 하나까지 신경 써주시는 교수님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수업은 모두 줌으로 비대면 형식입니다. 교수님께서 매 주차마다 PPT를 화면에 띄어주시면서 학생들은 공유된 PPT를 보면서 수업을 듣습니다. 중간중간 학생들을 부르시면서 PPT의 내용을 읽게 하거나 주제를 제시해 주시고 그것을 줌으로 채팅창에 자신의 생각을 간단히 써보면서 비대면이지만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C학생 황연화 교수님의 수업 스타일은 "부드러움" 입니다. 학생 이름 하나하나 호명하실 때 그걸 듣다보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참 좋아지는 마법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도 전반적으로 부담없이 쉬운 주제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과제, 난이도는 어떠한가요?

A학생 과제는 매 수업마다 채팅창에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과제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쓰는 과제입니다. 시험은 난이도가 높은 과제는 아니지만 정성을 다해 쓰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B학생 과목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시험 X or 과제 대체 or 시험 봄) "20살의 초상과 표현" 의 시험 형식은 과제 대체로 진행됩니다. 그 중, 기말 때 한 가지의 주제를 제시하고, 그 주제의 나의 리포트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 주차마다 한 가지의 주제를 제시하시면 그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으로 답변을 쓰시면 됩니다.

C학생 과제는 채팅창에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거나 부여하신 주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조사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과제가 어려우면 어안이 벙벙해지는 타입인데, 이 수업만큼은 열심히 참여하고 과제도 수월히 진행하여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Q. 이런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A학생 토론을 좋아하고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싶은 학생, 이야기를 좋아하는 학생, 시험보다는 감상문이나 의견을 내는 것이 좋은 학생, 비대면을 선호하는 학생

B학생 매시간 힐링이 필요한 학생에게 추천합니다. 전공으로 지치고, 다른 대면 교양으로 이리저리 바쁜 와중에 기숙사에서 편히 들을 수 있어 그 점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C학생 비대면은 선호하는 학생, 창의력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해보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제33호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우리는 지금 비행모드



곧 다가올 2024년! 새해를 맞이하고 다가올 휴식과 새로운 경험을 하고 피로를 날리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어디로 여행 가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보람차고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여행지들을 추천해 보았습니다. 같이 보러 가실까요? 이기연 기자 20191190285@jwu.ac.kr

1. 일본 기타큐슈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하는 여행지는 일본의 기타큐슈입니다! 일본여행을 간다고 하면 보통 후쿠오카나 오사카, 도쿄, 삿포로를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기타큐슈의 경우 관광객들이 적어, 그 덕분에 어느 인기 명소를 가도 한적하고 일본인분들의 생활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JR역에 있는 기차와 모노레일을 이용하여 편히 기타큐슈에 있는 소도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이 여행지에서 꼭 가봐야 할 곳

– 고쿠라성 –

작지만 깊은 운치가 있는 기타큐슈의 고쿠라 성입니다. 고쿠라성은 기타큐슈의 중심부쪽에 지어지고, 기타규슈역에서 도보로 20분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고쿠라성은 우아한 경내가 돋보이며 성을 감싸고 있는 무라사키강에 산책길이 위치하고 있어서 산책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성내에는 가쓰야마공원, 고쿠라정원 등이 복원되있어서 입장료(성인560엔)정도의 싼 가격으로 일본식 정원과 연못을 돌아보거나 다다미로 꾸며진 전통식 사무라이 서재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체험형 시설이 많아 즐길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2 이 여행지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은?

일본에 오면 수많은 먹거리들이 많지만, 추천하는 음식은 기타큐슈 단가시장의 음식들을 먹어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단가시장은 기타큐슈의 부엌이라 불릴 만큼 많은 기타큐슈 시민분들이 방문하는 생활의 터전이면서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관광 명소입니다. 이곳에는 수산물을 중심으로 야채, 육류, 건어물, 과일, 과자 등 여러 점포들이 있고 한국인들의 입맛에도 잘 맞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단가시장은 백종원의 스트리트 푸드파이터로 나온 관광지인데, 다른 시장과 달리 이곳에서는 밥 공기를 들고다니면서 곳곳의 점포들에서 한입정도의 반찬을 사서 내 입맛대로 덮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찬에는 고등어조림, 명란젓, 튀김요리 등 다양한 반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추천드리는 것은 장어구이입니다. 가게에서 바로 장어를 간장양념에 버무려서 숯불에 직화로 구운 뒤 노릇노릇한 채로 바로 밥 위에 올려주시는데, 적당한 간에, 껍질은 바삭하고, 살은 쫀득한 맛이 나 정말 밥과 함께 먹는 반찬으로 안성맞춤입니다. 그 외에도 떡집에서 팥떡과 양갱을 팔고있어서 밥을 먹고난 후에는 달달한 떡으로 식사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3 여행지 따로 준비할 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타큐슈는 고쿠라역이 위치하고 있는 시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적하고 여유로운 소도시가 많습니다. 시내에서는 고쿠라 역이나 쇼핑몰 및 모노레일 등 즐길거리가 많지만 한적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JR기차를 통해서 여러 소도시를 다녀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도시인만큼 즐길거리는 많지는 않지만, 소도시 특유의 아기자기한 주택가와 시원시원한 자연풍경이 어울려져 있어 숙소만 잘 예약한다면 색다른 일본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갔던 기타큐슈시 야하타니시구는 넓찍한 바다와 옹기종기 주택가들이 모여 있으면서 의외로 곳곳에 박물관이나 전시장들이 많아 도보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입니다. 여담으로 승강장에서 카시와메시라고 하는 닭고기가 들어간 큐슈지방의 유명 에키벤(도시락)을 파는 아저씨 분이 있는데, 도시락이 정말 맛있으니 혹시 방문하게 될 예정이시라면 사먹어 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2. 필리핀 마닐라



동남아 여행을 좋아하신다면 꼭 가봐야 할 필리핀 마닐라입니다!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는 대한민국의 대도시 서울이나 부산처럼 정말 많은 고층 빌딩이 있으며, 한때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유럽 남서부의 분위기의 건물이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거리와 교회와 더불어 정원, 골목, 꽃이 가득한 샛길이 많아 특색있는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1 이 여행지에서 꼭 가봐야 할 곳

들어가기전부터 정말 큰 크기의 건물이 인상적인 필리핀 국립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에는 전통적인 부족 작품에서 현대 작품까지 다양한 예술 작품 컬렉션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작품을 설명하는 교육프로그램, 다양한 갤러리 등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은 유화작품과 가톨릭의 영향을 받은 종교와 관련된 작품이 많아 이러한 작품을 통해 근대 사람들의 옷과 음식, 주거지, 교통을 보면서 그 당시 시대의 모습들을 면밀히 감상할 수 있습니다.

2층은 예술, 수공예품, 원시시대 무기 등 현대적인 전시품이 있습니다.



박물관 입장료도 무료이고 근처에는 리잘공원이 있어 편히 쉬실 수 있습니다.

2 이 여행지에 오면 꼭 먹어야 할 음식

마닐라에는 외국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가지 요리가 있고, 다양한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많아 어딜 가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추천드리는 것은 해산물 요리입니다. 필리핀은 바로 곁에 바다를 두고 있어 풍부한 해산물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새우, 게, 굴, 생선, 가재 등을 이용한 해산물 요리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담파 수산 시장에 가면, 직접 고른 해산물들을 근처 식당에서 바로 조리해주는 시스템이 있어,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통통하고 쫄깃한 맛이 일품인 타이거 칠리 새우를 맛보시는 것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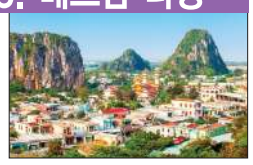


3 여행지에 오기전에 준비할 사항

마닐라에서 택시를 이용할 때 그랩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 택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격보다 더 높은 요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닐라로 출발하기전에 그랩앱을 미리 깔아놓으면 마닐라 공항에 도착해서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편하게 택시를 부를 수 있고, 목적지를 설정하면 요금을 미리 알 수 있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필리핀은 팁 문화가 매우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50~100(한국돈으로 1000원~2500원)페소를 지불하는 것이 평균적입니다. 따라서 미리 잔돈 페소를 준비해서 나중에 팁으로 지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베트남 다낭



각 계절마다 고유한 아름다운 풍경이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관광 투어, 호텔, 맛있는 음식과 액티비티들을 즐길 수 있는 베트남 다낭입니다.

다낭은 바다와 인접해 다양한 해변과 리조트들이 있어 매력적인 축제가 많아 피서를 즐기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있어 많은 여행자분들이 찾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1 여행지에 오면 꼭 가봐야 할 곳

다낭에 오면 다른곳은 안가더라도 이곳은 꼭 가봐야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바나힐입니다.

바나힐은 19세기 베트남이 프랑스 지배를 받던 시절, 프랑스인들이 더위를 피해 해발 1,487m 위치에 휴양지를 조성하여 최초로 마을을 만든 곳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바나힐로 올라가면 360도가 탁 트인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바나힐 전경과 프랑스마을, 그리고 베트남에서 가장 큰 놀이동산인 바나힐 판타지파크가 있습니다. 프랑스 마을은 동양안에 있는 유럽처럼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여러 건축양식을 보는 즐거움을 비롯해 다낭 시내를 한 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광장에 위치하고 있는 생드니 성당은 큰 규모는 아니지만 아지가 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나힐 판타지파크 놀이동산에서는 레일 바이크, 회전 그네, 범퍼카, 3D/4D 극장, 어린이 놀이터, 유령의 집, 자이로드롭, 암벽 등반 등 정말 다양한 놀이기구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바나힐을 당일치기로 모두 즐기기에는 시간도 촉박하고 시내와도 거리가 있는 편이라 이동시간도 걸려서 여유롭게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프랑스마을에 있는 호텔을 예약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2 여행지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할 음식

베트남 음식에는 역시 대표적인 음식 쌀국수나 베트남식 바게트 샌드위치인 반미, 튀긴 월남쌈 짜조, 베트남식 빈대떡 반쎄오와 해산물 요리 등 맛있는 음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나나 팬케이크를 꼭 먹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팬케이크 안에 바나나를 넣어 다른 음식들에 비해서는 소박하고 간단한 음식이지만, 사르르 녹으면서 감싸는 달달한 맛으로 하루를 기분좋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팬케이크 위에 누텔라나 연유를 바르면 더욱 맛있고 극한으로 달달한 맛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생맥주와 잘 어울려 안주로도 안성맞춤인 값싼 음식입니다.



3 여행지에 오기전에 준비할 사항

다낭은 베트남 중부지역으로 열대성 기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는데, 7월~10월은 우기로 날씨와 파도가 잔잔하여 해변을 즐기기는 더할나위 없지만, 가장 더운날에는 낮기온이 30~40도를 웃돌고, 햇볕이 뜨겁고 습도까지 높아서 밖에 있으면 사우나에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야외활동을 하기 힘든 기간입니다. 만약 이 기간에 여행을 한다면 무더위를 대비하여 여러 벌의 옷을 챙기고 햇빛을 피할 선크림과 선글라스, 모자등을 필수로 챙겨야 합니다.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3월, 4월로 건기가 시작되면서 낮 평균 기온은 28도에서 31도로 여행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습도가 낮아 비교적 덜 덥고 맑은 날이 많아 야외활동을 하기에 좋은 기간으로 이때 여행을 가게 되시면 통풍이 잘되는 여름 옷차림을 준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후원의 집

중원대학교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중원대학교 후원의 집은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위한 모금캠페인으로 지역사회 경제활성화 및
학생들의 꿈과 비전을 응원하며 후원하는 착한가게, 동문기업 및 협력업체, 기관 등을 의미합니다.

참여방법안내

참여신청서 출력 작성 › 메일 또는 팩스 제출 › 후원금 납부

메일 또는 팩스 제출
메일 : redguy@jwu.ac.kr
팩스 : 043-830-8079

납부방법

방문납부
본교 본관 1동 3층 대외협력팀
(M1 309호),
043)830-8071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615801-04-211393
(중원대학교 발전기금)

분할납부
기부자가 매월 약정한 날짜에
중원대학교 발전기금
통장으로
분할 납부(자동이체)

「후원의 집」 혜택

1) 교직원, 학생, 동문과 가족들의 후원업체 이용 적극 권장
2) 법인세 및 소득세(전액공제기부금) 감면용 영수증 발급
3) 참여업소에 「후원의 집」 벽시계 제공
4) 일정금액 해당시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시행
5) 본교 간행물 및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홍보
6) 각종 행사시 후원업소 이용 권장

대학교에 기부하시면 법정기부금으로 관련법규정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및 개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문의

전화 : (043)830-8071 팩스 : (043)830-8079
이메일 : redguy@jwu.ac.kr
주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대외협력팀 (M1 309호)

● 후원의 집 신규업체



경성술집



괴산꽃집


괴당카페


노정봉리조트



선일호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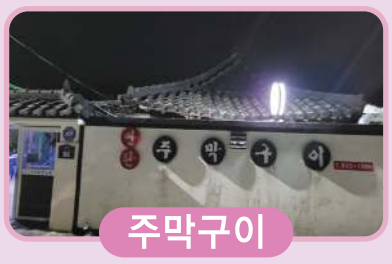


아지트


장회나루식당



장회나루휴게소



주막구이



진남휴게소


칠보산산장


팔경모텔



피자피크(괴산점)

● 중원대학교 '후원의 집' 업체

경아두마리치킨	괴산다슬기식당	그집순대
능이랑	모던 한끼	미소야
서울식당	송쌤수제햄부대찌개	수내닭꼬치충북괴산점
아라펍	알부자집	왕통가
우리매운탕	이강식당명가닭갈비	청풍면옥
팔도강산매운탕	피자나라 치킨공주	한우곰탕청솔

※ 후원의 집 업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원대학교 홈페이지 참조

www.jwu.ac.kr

학생이 먼저인 대학!

중원대학교

- 국내 최상의 캠퍼스
- 국내 최상의 장학금
- 국내 최상의 취업률

교육부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2024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

원서 접수기간 : 2024. 01. 03.(수) ~ 2024. 01. 06.(토) 18:00까지

문의 : (043)830-8082~6 http://ipsi.jwu.ac.kr

중원대학교
JUNGWON UNIVERSITY